

정례신행의범

2023.12.

世界佛學苑

정례신행의범 차례

엄정참회의식/ 03	예지장보살/ 108
현행천수경/ 04	칠정례예문/ 110
수십선계의식/ 24	예참발원문/ 113
설재포살의식/ 37	예신중단/ 135
생일법회의식/ 73	조례종송/ 138
금강반야바라밀경/ 77	향수해례/ 151
조석예경의식	조례석가불/ 154
석례종송/ 101	예불발원문/ 156
석례석가불/ 102	법성계/ 166
예아미타불/ 104	반야심경/ 169
예관음보살/ 106	

엄정참회의식

嚴淨懺悔儀式

○嚴淨(엄정):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절에 도착하면 주지스님 등께 인사하고 법당으로 들어간다.

○供養(공양): 향·금전 등 준비한 정성을 올린다.

○三歸依禮(삼귀의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며 절을 함)

일심정례 시방상주 붓다야중
一心頂禮 十方常住 佛陀耶衆

일심정례 시방상주 달마야중
一心頂禮 十方常住 達摩耶衆

일심정례 시방상주 승가야중
一心頂禮 十方常住 僧伽耶衆

일심으로 복덕 지혜 갖추신 붓다님과 욕심 여의게 하는 가르침과 청정하고 화합하는 승가에 절하옵니다.

○觀音請(관음청: 다라니를 받기 위해 관세음보살을 청함)

일심봉청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一心奉請 千手千眼 觀世音菩薩

유원 불위본서 애민유정 강림차지 설대비주
惟願 不違本誓 哀愍有情 降臨此地 說大悲呪

일심으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을 받들어 청하오니, 본래 서원 잊지 마시고 유정을 연민히 여겨 이곳에 오셔서 대비신주를 설해 주소서.

정구업진언 (말로 지은 행위를 깨끗이 하는 진언)
淨口業眞言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스바하」 [삼편]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제신[토지신]을 청해 옹호를 부탁드립니다 진언)
五方內外安慰諸神眞言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도로도로 지미 스바하」 [삼편]

개법장계주 (진리의 곳집을 여는 계송과 진언)
開法藏偈呪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
無上甚深微妙法 百千萬劫難遭遇
아금견문득수지 원해여래진실의
我今見聞得受持 願解如來眞實義

높고 깊은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지만
저는 이제 듣고 지녀 참된 의미 깨치리다.

「옴 아라남 아라다」 [삼편]

○千手呪請(천수주청: 관세음보살님께 다라니를 청함)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다라니 계청
千手千眼 觀自在菩薩 廣大圓滿 無礙大悲心 大陀羅尼 啓請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하여
걸림 없는 대비심의 다라니를 청합니다.

계수관음대비주 원력홍심상호신
稽首觀音大悲主 願力洪深相好身

천비장엄보호지 천안광명변관조
千臂莊嚴普護持 千眼光明遍觀照

진실어중선밀어 무위심내기비심
眞實語中宣密語 無爲心內起悲心

속령만족제희구 영사멸제죄업
速令滿足諸希求 永使滅除諸罪業

크신 원력 좋은 상호 천손으로 보호하고
천안으로 살피시며 법문 속에 밀어 펴고
무위심서 자비 내어 저희 소원 이뤄주고
모든 죄업 없애주는 관세음께 절합니다.

천룡중성동자호	백천삼매돈훈수
天龍衆聖同慈護	百千三昧頓熏修
수지신시광명당	수지심시신통장
受持身是光明幢	受持心是神通藏
세척진로원제해	초증보리방편문
洗滌塵勞願濟海	超證菩提方便門
아금칭송서귀의	소원종심실원만
我今稱誦誓歸依	所願從心悉圓滿

천룡중성 옹호하여 온갖 삼매 이뤄지며
 지닌 몸은 빛이 나고 지닌 마음 자유롭네.
 번뇌 씻고 고해 건너 보리방편 얻게 되며
 송주하며 귀의하니 원하는 일 이뤄지네.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지일체법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知一切法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지혜안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智慧眼

나무대비관세음 일체 법을 알려 하니, 나무대비관세음 지혜 눈을 얻게 되고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도일체중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度一切衆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선방편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善方便

나무대비관세음 일체 중생 건져내는 나무대비관세음 좋은 방편 얻게 되며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승반야선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乘般若船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월고해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越苦海

나무대비관세음 지혜 배에 어서 올라 나무대비관세음 고통바다 건너가고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득계정도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得戒定道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등원적산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登圓寂山

나무대비관세음 계정혜를 속히 갖춰 나무대비관세음 열반 언덕 올라가며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회무위사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會無爲舍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동법성신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同法性身

나무대비관세음 무위의 집 함께 모여 나무대비관세음 진리의 몸 이루리다.

아약향도산 도산자취절 아약향화탕 화탕자소멸
我若向刀山 刀山自摧折 我若向火湯 火湯自消滅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이고, 화탕지옥 내가 가면 화탕 절로 사라지며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갈 아약향아귀 아귀자포만
我若向地獄 地獄自枯竭 我若向餓鬼 餓鬼自飽滿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 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 내가 가면 아귀 절로 배부르며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복 아약향축생 자득대지혜
我若向修羅 惡心自調伏 我若向畜生 自得大智慧

아수라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 무너지고,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혜 절로 얻어지리.

나무관세음보살마하살 나무대세지보살마하살
南無觀世音菩薩摩訶薩 南無大勢至菩薩摩訶薩

나무천수보살마하살 나무여의륜보살마하살
南無千手菩薩摩訶薩 南無如意輪菩薩摩訶薩

나 무 대 륜 보 살 마 하 살
南 無 大 輪 菩 薩 摩 訶 薩

나 무 관 자 재 보 살 마 하 살
南 無 觀 自 在 菩 薩 摩 訶 薩

나 무 정 취 보 살 마 하 살
南 無 正 趣 菩 薩 摩 訶 薩

나 무 만 월 보 살 마 하 살
南 無 滿 月 菩 薩 摩 訶 薩

나 무 수 월 보 살 마 하 살
南 無 水 月 菩 薩 摩 訶 薩

나 무 군 다 리 보 살 마 하 살
南 無 軍 荼 利 菩 薩 摩 訶 薩

나 무 십 일 면 보 살 마 하 살
南 無 十 一 面 菩 薩 摩 訶 薩

나 무 제 대 보 살 마 하 살
南 無 諸 大 菩 薩 摩 訶 薩

나 무 본 사 아 미 타 불 [삼편]
南 無 本 師 阿 彌 陀 佛

신 묘 장 구 대 다 라 니
神 妙 章 句 大 陀 羅 尼

「나모라다나다라야야, 나막 알야 바로기데새바라야 모디사
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음, 살바 바예수 다
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막 까리다바, 이맘 알야바로기데새
바라 다바, 니라간타 나막 하리나야 마발다 이샤미, 살발

타 사다남, 수반, 아예염, 살바 보다남 바바 말아 미수다
감, 다냐타, 옴, 아로제, 아로가마디, 로가디가란데, 헤헤
하례, 마하 모디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구로 구
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 도로 미연데 마하미연데, 다
라 다라 다린나례새바라, 자라 자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데, 예헤헤 로제새바라, 라아미사 미나사야, 나베사미사
미나사야, 모하자라미사 미나사야, 호로 호로 마라, 호로
하례, 바나마나바,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못다
못다 모다야 모다야, 매다리야 니라간타, 가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나야 마낙 스바하, 싯다야 스바하, 마하싯다야 스
바하, 싯다유예새바라야 스바하, 니라간타야 스바하, 바라
하목카 싱하목카야 스바하, 바나마 하따야 스바하, 자가라
욕다야 스바하, 상카 섭나 네모다나야 스바하, 마하 라구

타 다라야 스바하, 바마 사간타 니샤 시체다 가릿나 이나
야 스바하, 마가라 잘마 니바사나야 스바하, 나모라다나다
라야야, 나막 알아 바로기데새바라야 스바하」

[마칠 때는 사홍서원 후 발원을 함]

Namo ratna-trayāya, namaḥ āryāvalokiteśvarāya bodhisattvāya, mahāsattvāya mahākāruṇikāya, Om̐ sar-
va-bhayeṣu trāṇa-karāya tasmai, namaskṛtvā, imam āryāvalokiteśvara-stavaṃ, Nīlakaṇṭha-nāma hṛdayam var-
tayiṣyāmi, sarvārtha-sādhanam̐, śubham̐, ajeyam̐, sarva-bhūtānam̐ bhava-mārga-viśodhakaṃ, tadyathā, om̐ āloka
e, ālokamati, lokā'tikrānta e, hy-ehi Hare, mahābodhisattva, smara-smara hṛdayam̐, kuru-kuru karma
sādhaya-sādhaya, dhuru-dhuru vijayanta e mahāvijayanta e, dhara-dhara dharaṇim̐dhareśvara, cala-cala malla vi-
malā, āmala-mūrte, ehy-ehi Lokeśvara, rāga-viṣam̐ vināśaya, dveṣa-viṣam̐ vināśaya, moha-jāla-viṣam̐ vināśaya,
hulu-hulu malla, hulu Hare, Padmanābha, sara-sara siri-siri suru-suru, buddhya-buddhya bodhaya-bodhaya, mai-
trīya Nīlakaṇṭha, kāmasya darśanena prahlādaya manaḥ svāhā, siddhāya svāhā, mahāsiddhāya svāhā, sid-
dha-yogeśvarāya svāhā, Nīlakaṇṭhāya svāhā, varāhamukha-simhamukhāya svāhā, padma-hastāya svāhā,
cakrāyudhāya svāhā, śaṅkha-śabda-nibodhanāya svāhā, mahā-lakuṭa-dharāya svāhā, vāma-skanda-deśa-sthi-
ta-kṛṣṇ-ājināya svāhā, vyāghra-carma-nivasanāya svāhā, namo ratna-trayāya, namaḥ āryāvalokiteśvarāya svāhā.¹⁾

1) Lokesh, Chandra, 『The thousand-armed Avalokitesvara』(India New Delhi: IGNC, 1988), 139-141.

○四方讚(사방찬: 가지주수한 물을 사방에 뿌린 후 하는 계송)

일쇄동방결도량 이쇄남방득청량
一 灑 東 方 潔 道 場 二 灑 南 方 得 清 涼
삼쇄서방구정토 사쇄북방영안강
三 灑 西 方 俱 淨 土 四 灑 北 方 永 安 康

동방에 물 뿌리니 도량이 깨끗하고, 남방에 물 뿌리니 천지가 청량하며
서방에 물 뿌리니 정토가 이뤄지고, 북쪽에 물 뿌리니 영원히 평안하네.

○道場讚(도량찬: 도량이 청정해졌음을 찬탄하는 계송)

도량청정무하예 삼보천룡강차지
道 場 清 淨 無 瑕 穢 三 寶 天 龍 降 此 地
아금지송묘진언 원사자비밀가호
我 今 持 誦 妙 真 言 願 賜 慈 悲 密 加 護

청정도량 티끌 없어 삼보천룡 예오시네.
미묘 진언 외우오니 대자비로 살피소서.

○懺悔偈(참회계: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아석소조제악업 개유무시탐진치
我 昔 所 造 諸 惡 業 皆 由 無 始 貪 瞋 癡

종신구의지소생 일체아금개참회

從身口意之所生 一切我今皆懺悔

제가 지은 모든 악업 탐진치로 생겨났고 친구의로 지었으니 일체 참회 하옵니다.

○懺除業障十二尊佛(참제업장12존불): 칭양성호의 가지예참으로 각 부처님께 3·3예(9배)를 하면 108예참이 되는데, '지심귀명례'할 때는 '나무'를 생략하고, 예참을 하지 않을 때는 평소대로 '지심귀명례'를 하지 않고 '나무 ~불'의 가지참회만 해도 무방하다.

나무보승장불
南無寶勝藏佛

나무보광왕화염조불
南無寶光王火焰照佛

나무일체향화자재력왕불
南無一切香華自在力王佛

나무백억항하사결정불
南無百億恒河沙決定佛

나무진위덕불
南無振威德佛

나무금강견강소복괴산불
南無金剛堅強消伏壞散佛

나무보광월전묘음존왕불
南無寶光月殿妙音尊王佛

나무환희장마니보적불
南無歡喜藏摩尼寶積佛

나무무진향승왕불
南無無盡香勝王佛

나무사자월불
南無獅子月佛

나무환희장엄주왕불
南無歡喜莊嚴珠王佛

나무제보당마니승광불
南無帝寶幢摩尼勝光佛

○十惡懺悔(십악참회: 열 가지 악업 참회: 사참)

살생중죄금일참회 투도중죄금일참회
殺生重罪今日懺悔 偷盜重罪今日懺悔

산 생명 해친 잘못을 참회하고 도둑질한 잘못을 참회하며

사음중죄금일참회 망어중죄금일참회
邪淫重罪今日懺悔 妄語重罪今日懺悔

삿된 음행한 잘못을 참회하고 거짓말한 잘못을 참회하며

기어중죄금일참회 양설중죄금일참회
綺語重罪今日懺悔 兩舌重罪今日懺悔

꾸민 말 한 잘못을 참회하고 이간질한 잘못을 참회하며

악구중죄금일참회 탐애중죄금일참회
惡口重罪今日懺悔 貪愛重罪今日懺悔

모진 말 한 잘못을 참회하고 욕심부린 잘못을 참회하며

진에중죄금일참회 치암중죄금일참회
瞋恚重罪今日懺悔 癡暗重罪今日懺悔

성내버린 잘못을 참회하고 삿된 소견 낸 잘못 참회합니다.

○理懺(이참)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제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百劫積集罪 一念頓蕩除 如火焚枯草 滅盡無遺餘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순간에 없어지니 마른풀을 태우듯이 남음 없이 사라지네.

죄무자성종심기 심약멸시죄역망
罪無自性從心起 心若滅時罪亦亡

죄망심멸양구공 시즉명위진참회
罪亡心滅兩俱空 是則名為真懺悔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마저 없다면 죄도 함께 사라지네.
모든 죄가 다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라네.

참회진언 (죄업을 뉘우치는 진언)
懺悔真言

「옴 살바 못자 모디사다야 스바하」 [삼편]

※ 참회진언을 마치고 21쪽 거불을 모시고 헌공이나 법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准提持誦便覽(준제지송편람)

준제공덕취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시인
准提功德聚 寂靜心常誦 一切諸大難 無能侵是人

준제주는 공덕 크니 일념으로 염송하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침해하지 못하리라

천상급인간 수복여불등 우차여의주 정획무등등
天上及人間 受福如佛等 遇此如意珠 定獲無等等

천신들과 사람들이 여래처럼 복 받으며 여의주를 만났으니 크나큰 법 얻으리라

「나무 칠구지불모대준제보살」 [삼편]
南無七俱胝佛母大准提菩薩

정법계진언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淨法界眞言

「옴 람」 [3·7·108편]

호신진언 [몸을 보호하는 진언]
護身眞言

「옴 치림」 [3·7·108편]

관세음보살본심미묘육자대명왕진언
觀世音菩薩本心微妙六字大明王眞言

「옴 마니 반메 흠」 [3·7·108편]

준제진언 (‘옴~스바하’ 준제주만 천 편 이상 정근)
准提眞言

「나모 사다남 삼막삼못다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 주레 준제 스바하’ · 부림」 [3·7·108·천 편 이상]

○准提發願(준제발원)

아금지송대준제 즉발보리광대원
我今持誦大准提 卽發菩提廣大願

원아정혜속원명 원아공덕개성취
願我定慧速圓明 願我功德皆成就

원아승복변장엄 원공중생성불도
願我勝福遍莊嚴 願共衆生成佛道

준제주를 지송하며 보리대원 세우오니, 선정 지혜 일만하고
온갖 공덕 성취되며 수승한 복 장엄하고 깨달음을 이루리다.

여래십대발원문 (왕생정토 십대원)
 如來十大發願文

원아영리삼악도 원아속단탐진치
 願我永離三惡道 願我速斷貪瞋癡

원아상문불법승 원아근수계정혜
 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원아항수제불학 원아불퇴보리심
 願我恒隨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원아결정생안양 원아속견아미타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원아분신변진찰 원아광도제중생
 願我分身遍塵刹 願我廣度諸衆生

삼악도를 벗어나며, 탐진치를 속히 끊고, 불법승을 따르오며,
 계정혜를 항상 닦고, 여래처럼 늘 배우며, 보리심을 잃지 않고,
 극락세계 태어나서, 아미타불 친견하고, 온 세계에 몸 나타내,
 중생제도 원합니다.

발사홍서원 (네 가지 큰 서원을 발함)
發 四 弘 誓 願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衆 生 無 邊 誓 願 度 煩 惱 無 盡 誓 願 斷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法 門 無 量 誓 願 學 佛 道 無 上 誓 願 成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自 性 衆 生 誓 願 度 自 性 煩 惱 誓 願 斷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성
自 性 法 門 誓 願 學 自 性 佛 道 誓 願 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자성 중생 건지오리다. 자성 번뇌 끊으오리다.
자성 법문 배우오리다. 자성 불도 이루오리다.

발원이 귀명례삼보 (일배)
發 願 已 歸 命 禮 三 寶

이제 발원 마치옵고 삼보님께 절하옵니다.

○個別祈願(개별기원): 개인의 간절한 소망을 부처님 전에 지극 정성으로, 자신에게 맞도록 발원문을 고쳐 암송한다.

고통 받는 중생들을 자비로 인도하시는 부처님! 저희들은 지난날 무명의 구름에 가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인과의 도리를 알지 못해 갈 길 몰라 헤매었나이다. 이제 바른 법을 만나 귀의하오니 이 공덕으로 업보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해탈의 밝은 빛을 찾아 자비의 품에 들게 하소서.

세간의 등불이며 온갖 공덕으로 중생을 인도하시는 부처님! 저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여래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으로 고통을 당할 때 여래의 손을 잡게 하시며, 불화로 반목할 때 여래의 미소를 보게 하시고, 나태와 좌절에 빠져 허덕일 때 여래의 고행을 배우게 하소서.

복덕·지혜 다 갖추신 부처님! 지금 저희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사업번창, 건강회복, 합격성취 등) 소원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이다.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생명, 모든 이웃들이 안락한 삶 누리어지이다.

○ 擧佛(기불)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무상주시방승」

南無常住十方佛 南無常住十方法 無常住十方僧

○ 入定·看經(입정·간경): 공양·참회·정근·발원을 마친 후 자리를 편하게 가부좌 혹은 반가부좌 자세로 수식관이나 자비관 등 지도법사의 지도에 따라 명상에 들어간다. 또는 경전을 선택해 마음속으로 염송한다.

자각 선사의 좌선의 기본법식 열 가지

첫째, 서원(誓願)을 크게 세운다.

둘째, 모든 인연을 놓는다.

셋째, 음식을 적당히 먹는다.

넷째, 잠을 고르게 한다.

다섯째, 고요하고 한적한 장소를 잘 택한다.

여섯째, 몸을 잘 조정한다.

두꺼운 방석 위에 앉아서 허리띠를 늘려 몸과 호흡을 자유스럽도록 하며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위에 겹친다. 그리고 왼발을 오른쪽 무릎 위에 포갠다. 이것을 결가부좌(結跏趺坐)라고 한다. 또한 반가부좌는 왼발을 오른쪽 무릎 위에 놓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오른손을 왼발 위에 놓고 왼손을 오른손 바닥 위에 겹치며 양쪽 엄지손가락 끝을 서로 둥글게 맞댄다. 이것이 대삼마야인(大三摩耶印) 또는 법계정인(法界定印)이다. 몸을 서서히 바로 일으키며 허리를 반듯이 편다. 이때에 몸을 전후좌우로 약간 움직여서 허리를 단정히 세운다. 몸이 기울면 안 된다. 어깨에 힘을 주어도 안 된다. 몸은 바르게 어깨 힘을 빼고, 턱은 당기고, 눈은 반쯤 떠서 코 끝을 보는 상태로 한

다. 귀와 어깨가 서로 대하고 코와 배꼽이 서로 대하도록 반듯이 한다. 혀는 입안 천정에 대고 입을 가볍게 다문다. 이것이 좌선하는 자세이다.

일곱째, 호흡을 고르게 한다.

처음에 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쉰다. (깊게) 다음에 서서히 호흡을 들이쉰다. 이때 생각으로 호흡이 코에서 가슴을 거쳐 배로, 다시 배꼽 아래 단전 부위에 이르는 것을 관한다. 호흡이 단전에 이르러서는 잠시 머문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내쉴 때에는 되도록이면 정밀하게 서서히 하도록 한다. 생각과 힘이 호흡에서 떠나지 않아서 단전에서 가슴으로 다시 코로 내쉬는 것을 관하여야 한다. 호흡은 항상 코로 한다. 속도는 평상시보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하되 무리하지 않도록 한다. 호흡은 거칠면 안 된다. 서두르면 안 된다. 모든 생각을 놓아 버려야 한다.

여덟째, 마음을 잘 고른다(調心).

이미 몸이 안정되고 호흡이 고르게 되면 저절로 번뇌가 끊어져 맑은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이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체 생각을 하면 안 되며,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를 해 가야만 된다.

아홉째, 공부할 때 마군의 장난이나 공부의 바름·잘못됨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열째, 좌선할 때의 마음상태를 꾸준히 잘 지켜가야 한다.

여기서 말한 좌선의 자세는 좌선을 처음 배우고자 하는 학도를 위한 것이다. 참선수행의 목적은 바로 번뇌 생사의 의단미운(疑團迷雲)을 헤치고 자기 본래의 면목을 드러내 각체윌명(覺體圓明)의 본원을 증득하는 데 있다.

[지광, 『성불합시다』 592~594쪽 참조]

수삼귀십계의식: 24

설재포살의식: 37

[삼귀십계를 받지 않은 이가 있을 때는 24쪽 <수삼귀십계의식>을 봉행하는데, 수계 이후에 포살의식을 봉행할 때는 34쪽 입지계송을 마친 다음 39쪽의 예참공양부터 이어서 봉행한다. 십선계 수계의식만 봉행할 때는 24쪽에서 36쪽 하단 끝까지 설행하고, 설재포살의식만 봉행할 때는 37쪽의 <설재포살의식>을 끝까지 봉행한다. 인례 법사(혹은 거사)는 시작 시각 5분 전에 경쇠를 5번 울려 대중이 정해진 자리에 착석하게 하고, 정시가 되면 경쇠를 한 번 울리고 의례를 시작한다. 동참 대중은 작은 정성이라도 설재공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주 법사는 불단에서 대중을 향해 앉으며, 인례 법사는 좌우에서 중앙을 향해 시립하거나 좌정해서 의식을 봉행한다. 설계는 3창을 하는데 회주 법사가 선창하며 대중이 따라서 제창한다. 대중축원 이후의 법담 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적 언설을 최대한 자제하며, 종료하면 소임 이외에는 곧바로 귀가하도록 인도한다.]

受三歸十善戒儀式

수삼귀십선제의식

[인례 개시 5분 전 명종 5타, 대중 운집 정좌 명상 후 명종 1타 후 진행]

나모붓다야 [십넛]

淨法界眞言 음 람 [삼칠편]
정 법 계 진 언

[대비주 염송하여 쇄수법사 감로정수를 뿌려 대중과 계단과 공양물을 정화]

신묘장구대다라니
神妙章句大陀羅尼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나막 알야 바로기데새바라야 모디사
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음, 살바 바예수 다라
나 가라야, 다사명 나막 까리다바, 이맘 알야바로기데새바라
다바, 니라간타 나막 하리나야 마발다 이샤미, 살발타 사다남,
수반, 아예염, 살바 보다남 바바 말아 미수다감, 다냐타, 음,

아로제, 아로가마디, 로가디가란데, 헤헤 하레, 마하 모디사다
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구로 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 도로 미연데 마하미연데, 다라 다라 다린나레새바라, 자
라 자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데, 예헤헤 로제새바라, 리아
미사 미나사야, 나베사미사 미나사야, 모하자라미사 미나사야,
호로 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바나마나바,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못다 못다 모다야 모다야, 매다리야 니라간타, 가
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나야 마낙 스바하, 싯다야 스바하, 마하
싯다야 스바하, 싯다유예새바라야 스바하, 니라간타야 스바하,
바라하목카 싱하목카야 스바하, 바나마 하따야 스바하, 자가
라옥다야 스바하, 상카 섭나 네모다나야 스바하, 마하 라구타
다라야 스바하, 바마 사간타 니샤 시체다 가룻나 이나야 스바
하, 마가라 잘마 니바사나야 스바하,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나막 알야 바로기데새바라야 스바하」 [일삼편]

進供眞言 「옴 반자 스바하」 [삼편]
진 공 진 언

供養偈
공 양 계

제가 지금 비밀주를 풍송하오니
가없는 큰 공양이 출생하여서
다함없는 삼보 전에 공양 올리니
자비로써 가없이 여겨 거뒀주소서.

[동참 대중 차례로 헌공, 이후 예경]

예경공양 [예불참회문 <설계포살의식> 39~61쪽으로 대체 가능]
禮 敬 供 養

나모 본사 석가모니불
南 無 本 師 釋 迦 牟 尼 佛

나모 동방교주 약사유리광불
南 無 東 方 教 主 藥 師 琉 璃 光 佛

나모 서방교주 아미타불
南無西方教主阿彌陀佛

나모 당래교주 미륵존불
南無當來教主彌勒尊佛

나모 보승장불 [念一聲滅騎騎畜罪]
南無寶勝藏佛

나모 보광왕화염조불 [念一聲滅傷損罪]
南無寶光王火焰照佛

나모 일체향화자재력왕불 [念一聲滅惡口罪]
南無一切香花自在力王佛

나모 백억항하사결정불 [念一聲滅殺生罪]
南無百億恒河沙決定佛

나모 진위덕불 [念一聲滅犯姪罪]
南無振威德佛

나모 금강견강소복괴산불 [念一聲不墮阿鼻地獄]
南無金剛堅強消伏壞散佛

나모 보광월전묘음존왕불 [念一聲準誦大藏經]
南無寶光月殿妙音尊王佛

나모 환희장마니보적불
南無歡喜藏摩尼寶積佛

나모 무진향승왕불 [念一聲超越無量劫罪得宿命智]
南無無盡香勝王佛

나모 사자월불 [念一聲離畜生身滅無量劫罪]
南無獅子月佛

나모 환희장엄주왕불 [念一聲楚越五百萬億阿僧祇生死罪]
南無歡喜莊嚴珠王佛

나모 제보당마니승광불
南無帝寶幢摩尼勝光佛

나모 대지문수보살
南無大智文殊菩薩

나모 대행보현보살
南無大行普賢菩薩

나모 대비관세음보살
南無大悲觀世音菩薩

나모 대원지장보살
南無大願地藏菩薩

나모 청정해회제대보살
南無 清淨海會諸大菩薩

나모 진허공계 변법계 무진삼보
南無 盡虛空界 徧法界 無盡三寶

[인례 2, 대중 제창]

삼보시여,
크신 사랑과 연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올리는 절 받으시고
은밀하게 가피 입게 하소서. [반배]

탐욕 성냄 어리석음 영원히 끊고
붓다 교법 승가 대중 언제나 만나
계정혜를 부지런히 항상 닦아서
이마를 만지며 주시는 기별 받기 원합니다.

運心供養偈呪 [청수 진언 합장 운심]
운 심 공 양 계 주

청정하고 오묘한 향긋한 공양
허공계와 법계에 두루 퍼져서
다함없는 삼보 전에 올리웁니다.

나막 살바 다타아데박 미새바모계박 살바다캄
오나아데 빠라헤맘 「옴 아아나감 스바하」 [삼편]

[수계자 앞으로 나와 전계 화상께 3배]

正說三戒 [삼귀의계를 바로 설함. 전계화상 설계]
정 설 삼 계

붓다를 믿고 칭명하며 따르겠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겠습니다.
청정한 승가를 공경하며 따르겠습니다.

正說十戒 [십계를 바로 설함. 전계화상 설계]
정 설 십 계

첫째 산 생명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둘째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셋째 그릇된 이성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꾸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곱째 모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덟째 탐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아홉째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열번째 샳된 소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위 열 가지 깨끗한 계목은 어느 하나 범해서는 안 되느니,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잘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겠습니다.”

잘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겠습니다.”

[인레 수계자 제창]

시방 법계 다함없는 삼보님께 아뢰옵니다.
자비를 버리지 마옵시고 밝게 살피 주옵소서.
저희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오늘까지
몸으로 지은 불선업인 살생 · 도적질 · 사음과
입으로 지은 불선업인 거짓말 · 꾸민 말 ·
악한 말 · 이간질하는 말과
뜻으로 지은 불선업인 탐냄 · 성냄 · 사견 등

무거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스스로 짓거나, 남을 시켜 지은 죄가 한이 없으나
삼보 전에 드러내어 참회하오니,
이미 지은 죄는 소멸해 주옵소서.
짓지 않은 죄는 다시 짓지 않으리니
삼보시여, 자비로써 증명하소서.
자비로써 상대 따라 화현하시고
슬기로운 진언말씀 설해주소서.

관세음보살멸업장진언

「**옴 아로 늑제 스바하**」 [삼철편]

『사생육도 법계 유정 짓고 지은 모든 업장
소멸되기 바라오며, 저희 이제 참회하고

머리 숙여 절하오니 남김없이 소멸되어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하게 하옵소서.』

[참회진언 염송하며 연비법사 연비 진행]

懺悔偈呪 [인레 대중 제창]
참 회 계 주

제가 지은 모든 악업 탐진치로 생겨났고
신구의로 지었으니 일체참회 하옵니다.

「옴 살바 못자 보디 사다야 스바하」 [연비 끝날 때까지]

[전계화상 연비법사 연비하고, 향을 연비법사에게 건네주면 연비법사는 대중들을 연비하고 마치면 상단에 절한다. 이 때 대중도 상단을 향해 아래 구문을 염송하며 절 1배를 올림]

참회를 마치고 삼보님께 절합니다. [절]

立志偈 [계율을 지나겠다는 의지를 세우는 계승. 인례 1과 대중 제창]
입 지 계

지금부터 붓다 이룰 그날까지
금계를 굳건히 지니옵고
훼손도 범하지도 않겠사오니
붓다시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몸과 목숨 버릴지언정
결단코 물러나지 않겠나이다.
뜻을 세워 마치고 삼보님께 절합니다. [절 1배]

[수계자 제 자리로 돌아감. 인례 2진행, 포살의식을 바로 이어서 행할 때는 1배를 마치고 이하를 생략하고,
바로 39쪽의 예참공양부터 시작함]

보회향진언
普廻向眞言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마하 자가라바 흠」 [삼편]

나무 대불정 여래밀인 수증요의 제보살만행 수능엄신주
다냐타 「옴 아나례 비사제 비라 바아라 다리 반다반다
니 바아라 바니반 호흞 다로옹박 스바하」 [삼편]

[법주 축원]

[곧바로 포살의식을 할 때는 퇴공하지 않고 39쪽 예참의식으로 이어서 정근]

退供眞言 「옴 살바 반자 스바하」 [삼편]
퇴 공 진 언

[대중 법담 및 점다(點茶 有司分排茶餅) 이후 '나모붓다야' 십념]

나모붓다야 나모붓다야 나모붓다야
나모붓다야 나모붓다야 나모붓다야
나모붓다야 나모붓다야 나모붓다야
나모붓다야

[수계를 마친 대중은 자리를 정돈한 후 조용히 퇴좌한다.] [끝]

설계포살의식

[인례 1 개시 5분 전 명종 5타, 대중 운집 정좌 명상 후 명종 1타 후 진행]

나모붓다야 [십념]

淨法界眞言 음 람 [삼칠편]
정 법 계 진 언

[대비주 염송하여 쇄수법사 감로정수를 뿌려 대중과 계단과 공양물을 정화]

신묘장구대다라니
神妙章句大陀羅尼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나막 알아 바로기데새바라야 모디사
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음, 살바 바예수 다라
나 가라야, 다사명 나막 까리다바, 이맘 알아바로기데새바라
다바, 니라간타 나막 하리나야 마발다 이샤미, 살발타 사다남,
수반, 아예염, 살바 보다남 바바 말아 미수다감, 다냐타, 음,

아로제, 아로가마디, 로가디가란데, 헤헤 하레, 마하 모디사다
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구로 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 도로 미연데 마하미연데, 다라 다라 다린나레새바라, 자
라 자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데, 예헤헤 로제새바라, 리아
미사 미나사야, 나베사미사 미나사야, 모하자라미사 미나사야,
호로 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바나마나바,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못다 못다 모다야 모다야, 매다리야 니라간타, 가
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나야 마낙 스바하, 싯다야 스바하, 마하
싯다야 스바하, 싯다유예새바라야 스바하, 니라간타야 스바하,
바라하목카 싱하목카야 스바하, 바나마 하따야 스바하, 자가
라옥다야 스바하, 상카 섭나 네모다나야 스바하, 마하 라구타
다라야 스바하, 바마 사간타 니샤 시체다 가룻나 이나야 스바
하, 마가라 잘마 니바사나야 스바하,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나막 알아 바로기데새바라야 스바하」 [일삼편]

進供眞言 「옴 반자 스바하」 [삼편]
진 공 진 언

供養偈
공 양 계

제가 지금 비밀주를 풍송하오니
가없는 큰 공양이 출생하여서
다함없는 삼보 전에 공양 올리니
자비로써 가없이 여겨 거뉘주소서.

[동참 대중 불단으로 나아가 헌공을 하고, 예참과 예경을 함]
[수계의식을 하고 할 때는 이곳부터 진행]

예참 [예불참회문, 인례 진행, 대중 제창, 생략할 때는 62쪽 예경]
禮 懺

1 대자비로 증생들을 어여삐 보셔
대희대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수승하신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 [절]

2 나모 금강상사 [절]
南 無 金 剛 上 師

3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절]
歸 依 佛 歸 依 法 歸 依 僧

4 제가이제 발심하여 예배하옵은
제스스로 복얻거나 천상에나며
성문연각 보살지위 구함아니요
오직오직 최상승을 의지하옵고
아닛다라삼막삼보디심 뉘시오이다.
원하노니 시방세계 모든중생이
다 함께 무상보리 얻어지이다. [절]

5 나모 시방 진허공계 일체제불 [절]
南無十方塵虛空界一切諸佛

6 나모 시방 진허공계 일체존법 [절]
南無十方塵虛空界一切尊法

7 나모 시방 진허공계 일체현성승 [절]
南無十方塵虛空界一切賢聖僧

8 나모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南無如來應供正徧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절]
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

9 나모 보광불 [절]
南無普光佛

10 나모 보명불 [절]
南無普明佛

11 나모 보정불 [절]
南無普淨佛

12 나모 다마라발전단향불 [절]
南無多摩羅跋耨檀香佛

- 13 **나모 전단광불** [절]
 南 無 栴 檀 光 佛
- 14 **나모 마니당불** [절]
 南 無 摩 尼 幢 佛
- 15 **나모 환희장마니보적불** [절]
 南 無 歡 喜 藏 摩 尼 寶 積 佛
- 16 **나모 일체세간락견상대정진불** [절]
 南 無 一 切 世 間 樂 見 上 大 精 進 佛
- 17 **나모 마니당등광불** [절]
 南 無 摩 尼 幢 燈 光 佛
- 18 **나모 혜거조불** [절]
 南 無 慧 炬 照 佛
- 19 **나모 해덕광명불** [절]
 南 無 海 德 光 明 佛
- 20 **나모 금강퇴강보산금광불** [절]
 南 無 金 剛 牢 強 普 散 金 光 佛
- 21 **나모 대강정진용맹불** [절]
 南 無 大 強 精 進 勇 猛 佛

- 22 나 모 대 비 광 불 [절]
南 無 大 悲 光 佛
- 23 나 모 자 력 왕 불 [절]
南 無 慈 力 王 佛
- 24 나 모 자 장 불 [절]
南 無 慈 藏 佛
- 25 나 모 전 단 굴 장 엄 승 불 [절]
南 無 梅 檀 窟 莊 嚴 勝 佛
- 26 나 모 현 선 수 불 [절]
南 無 賢 善 首 佛
- 27 나 모 선 의 불 [절]
南 無 善 意 佛
- 28 나 모 광 장 엄 왕 불 [절]
南 無 廣 莊 嚴 王 佛
- 29 나 모 금 화 광 불 [절]
南 無 金 華 光 佛
- 30 나 모 보 개 조 공 자 재 력 왕 불 [절]
南 無 寶 蓋 照 空 自 在 力 王 佛

- 31 나 모 허 공 보 화 광 불 [절]
 南 無 虛 空 寶 華 光 佛
- 32 나 모 유 리 장 업 왕 불 [절]
 南 無 琉 璃 莊 嚴 王 佛
- 33 나 모 보 현 색 신 광 불 [절]
 南 無 普 現 色 身 光 佛
- 34 나 모 부 동 지 광 불 [절]
 南 無 不 動 智 光 佛
- 35 나 모 향 복 증 마 왕 불 [절]
 南 無 降 伏 衆 魔 王 佛
- 36 나 모 재 광 명 불 [절]
 南 無 才 光 明 佛
- 37 나 모 지 혜 승 불 [절]
 南 無 智 慧 勝 佛
- 38 나 모 미 륵 선 광 불 [절]
 南 無 彌 勒 仙 光 佛
- 39 나 모 선 적 월 음 묘 존 지 왕 불 [절]
 南 無 善 寂 月 音 妙 尊 智 王 佛

- 40 나 모 세 정 광 불 [절]
南 無 世 淨 光 佛
- 41 나 모 용 종 상 존 왕 불 [절]
南 無 龍 種 上 尊 王 佛
- 42 나 모 일 월 광 불 [절]
南 無 日 月 光 佛
- 43 나 모 일 월 주 광 불 [절]
南 無 日 月 珠 光 佛
- 44 나 모 혜 당 승 왕 불 [절]
南 無 慧 幢 勝 王 佛
- 45 나 모 사 자 후 자 재 력 왕 불 [절]
南 無 獅 子 吼 自 在 力 王 佛
- 46 나 모 묘 음 승 불 [절]
南 無 妙 音 勝 佛
- 47 나 모 상 광 당 불 [절]
南 無 常 光 幢 佛
- 48 나 모 관 세 등 불 [절]
南 無 觀 世 燈 佛

- 49 **나모 혜위등왕불** [절]
 南 無 慧 威 燈 王 佛
- 50 **나모 법승왕불** [절]
 南 無 法 勝 王 佛
- 51 **나모 수미광불** [절]
 南 無 須 彌 光 佛
- 52 **나모 수만나화광불** [절]
 南 無 須 曼 那 華 光 佛
- 53 **나모 우담발라화수승왕불** [절]
 南 無 優 曇 鉢 羅 華 殊 勝 王 佛
- 54 **나모 대혜력왕불** [절]
 南 無 大 慧 力 王 佛
- 55 **나모 아촉비환희광불** [절]
 南 無 阿 闍 毘 歡 喜 光 佛
- 56 **나모 무량음성왕불** [절]
 南 無 無 量 音 聲 王 佛
- 57 **나모 재광불** [절]
 南 無 才 光 佛

- 58 나모 금해광불 [절]
 南 無 金 海 光 佛
- 59 나모 산해혜자재동왕불 [절]
 南 無 山 海 慧 自 在 通 王 佛
- 60 나모 대통광불 [절]
 南 無 大 通 光 佛
- 61 나모 일체법상만왕불 [절]
 南 無 一 切 法 常 滿 王 佛
- 62 나모 석가모니불 [절]
 南 無 釋 迦 牟 尼 佛
- 63 나모 금강불괴불 [절]
 南 無 金 剛 不 壞 佛
- 64 나모 보광불 [절]
 南 無 寶 光 佛
- 65 나모 용존왕불 [절]
 南 無 龍 尊 王 佛
- 66 나모 정진군불 [절]
 南 無 精 進 軍 佛

- 67 나 모 정 진 희 불 [절]
 南 無 精 進 喜 佛
- 68 나 모 보 화 불 [절]
 南 無 寶 火 佛
- 69 나 모 보 월 광 불 [절]
 南 無 寶 月 光 佛
- 70 나 모 현 무 우 불 [절]
 南 無 現 無 愚 佛
- 71 나 모 보 월 불 [절]
 南 無 寶 月 佛
- 72 나 모 무 구 불 [절]
 南 無 無 垢 佛
- 73 나 모 이 구 불 [절]
 南 無 離 垢 佛
- 74 나 모 용 시 불 [절]
 南 無 勇 施 佛
- 75 나 모 청 정 불 [절]
 南 無 清 淨 佛

76 나 모 청 정 시 불 [절]
南 無 淸 淨 施 佛

77 나 모 사 류 나 불 [절]
南 無 娑 留 那 佛

78 나 모 수 천 불 [절]
南 無 水 天 佛

79 나 모 견 덕 불 [절]
南 無 堅 德 佛

80 나 모 전 단 공 덕 불 [절]
南 無 梅 檀 功 德 佛

81 나 모 무 량 극 광 불 [절]
南 無 無 量 掬 光 佛

82 나 모 광 덕 불 [절]
南 無 光 德 佛

83 나 모 무 우 덕 불 [절]
南 無 無 憂 德 佛

84 나 모 나 라 연 불 [절]
南 無 那 羅 延 佛

- 85 나모 공덕화불 [절]
南 無 功 德 華 佛
- 86 나모 연화광유희신통불 [절]
南 無 蓮 華 光 遊 戲 神 通 佛
- 87 나모 재공덕불 [절]
南 無 才 功 德 佛
- 88 나모 덕념불 [절]
南 無 德 念 佛
- 89 나모 선명칭공덕불 [절]
南 無 善 名 稱 功 德 佛
- 90 나모 홍염제당왕불 [절]
南 無 紅 燄 帝 幢 王 佛
- 91 나모 선유보공덕불 [절]
南 無 善 遊 步 功 德 佛
- 92 나모 투전승불 [절]
南 無 鬪 戰 勝 佛
- 93 나모 선유보불 [절]
南 無 善 遊 步 佛

- 94 **나모 주잡장엄공덕불** [절]
 南 無 周 匝 莊 嚴 功 德 佛
- 95 **나모 보화유보불** [절]
 南 無 寶 華 遊 步 佛
- 96 **나모 보련화선주사라수왕불** [절]
 南 無 寶 蓮 華 善 住 娑 羅 樹 王 佛
- 97 **나모 법계장신아미타불** [절]
 南 無 法 界 藏 身 阿 彌 陀 佛

98 이와같은 모든세계 제불세존은
 어느때나 증생들과 함께하시니
 저희들을 이제다시 살피주소서
 저희들의 지난날을 생각하오면
 이생으로 저생으로 그면생으로
 시작없는 옛적부터 내려오면서
 가지가지 지은죄가 한이없으니

제스스로	혼자서도	지었사오며
다른이름	시켜서도	짓게 하오며
남이하는	나쁜짓을	좋아하였고
탐전이나	삼보도량	갖춘물건도
승물이나	사방승물	가릴것없이
제것인양	마음대로	갖기도하고
다른이름	시켜서도	흠치었으며
상주물건	흠치기를	좋아하였고
무간지옥	떨어질	오역중죄도
제스스로	혼자서도	지었사오며
다른이름	시켜서도	짓게 하오며
남이짓는	오역죄를	좋아하였고

삼악도에 떨어질 십악중죄도
제스스로 혼자서도 지었사옵고
다른이를 시켜서도 짓게 하오며
남이짓는 십불선도 좋아했으니
이와같은 모든죄가 태산같이되
어떤것은 지금에도 생각에남고
어떤것은 아득하여 알수없으나
알든말든 지은죄에 오는과보는
지옥아귀 축생도나 다른악취나
변지하천 멸려차로 떨어지리니
제가이제 지성다해 부처님전에
이와같은 모든죄상 참회합니다. [절]

99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제 불세 존은
	저희들의	온갖 일을	다 아시오니
	대 자비심	베 푸시어	살펴 주소서
	제가 다시	제 불전에	아뢰옵니다
	저희들이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보시 공덕	지었거나	제를 가지되
	축생에게	먹이 한 입	준 일로부터
	청정 범행	닭고 익힌	정행 공덕과
	중생들을	성취 시킨	선근 공덕과
	무상 보리	수행 해 온	수행 공덕과
	위 없는	큰 지혜의	모든 공덕도
	모든 것을	함께 모아	요량 하여서

남김없이	보리도에	회향하옵되
시방삼세	상주하신	부처님께서
지으신	온갖공덕	회향하듯이
저도또한	그와같이	회향합니다.
제가이제	모든죄상	참회하옵고
모든복덕	남김없이	수회하오며
부처님을	칭하온	공덕으로써
무상지혜	이뤄지길	원하옵니다.
시방삼세	상주하신	부처님들은
시방세계	다함없는	증생들에게
가없고	한량없는	공덕바다니
제가이제	목숨바쳐	절하옵니다. [절]

100 가없는 시방세계 그가운데에
 과거현재 미래세의 부처님들께
 맑고맑은 몸과말과 뜻을기울여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경하옵되
 보현보살 행과원의 위신력으로
 널리일체 여래전에 몸을나투고
 한몸다시 찰진수효 몸을나투어
 찰진수불 빠짐없이 예경합니다. [절]

101 일미진증 미진수효 부처님계셔
 곳곳마다 많은보살 모이시었고
 무진법계 미진에도 또한그같이
 부처님이 총만하심 깊이믿으며

몸몸마다 한량없는 음성으로써
 다함없는 묘한말씀 모두내어서
 오는세상 일체겁이 다할때까지
 부처님의 깊은공덕 찬탄합니다. [절]

102 아름답기 으뜸가는 여러꽃타래
 좋은풍류 좋은향수 좋은일산들
 이와같은 훌륭한장엄구로써
 시방삼세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으뜸가는 좋은의복 좋은향들과
 가루향과 꽃는향과 등과촛불의
 날날것을 수미산의 높이로모아
 일체여래 빠짐없이 공양하오며

넓고크고 수승하온 이내슬기로
시방삼세 부처님을 깊이믿삼고
보현보살 행원력을 모두기울여
일체제불 빠짐없이 공양합니다. [절]

103 지난세상 제가지은 모든악업은
무시이래 탐진치심 어리석음에
몸과말과 뜻으로써 지었음이라
제가이제 남김없이 참회합니다. [절]

104 시방세계 여러종류 모든증생과
성문연각 유학무학 여러이승과
일체의 부처님과 모든보살의
지니옵신 온갖공덕 기뻐합니다. [절]

105 시방세계 계시옵는 세간등불과
가장처음 보리도를 이루신님께
위없는 묘한법문 설하시기를
제가이제 지성다해 권청합니다. [절]

106 부처님이 대열반에 들러하시면
무량겁을 이세상에 계시오면서
일체증생 이락하게 살피주시길
있는지성 기울여서 권청합니다. [절]

107 부처님을 예찬하고 공양한공덕
오래계셔 법문하심 청하온공덕
기뻐하고 참회하온 온갖선근을
증생들과 보리도에 회향합니다. [절]

108 설재포살 수승하온 일체공덕을
 위없는 진법계에 회향하오며,
 이치에도 현상에도 막힘이없고
 불법이고 세간이고 결림이없는
 삼보님과 삼매인의 공덕바다를
 제가이제 남김없이 회향하오니,
 모든중생 신구의로 지은업장들
 잘못보고 트집잡고 비방도하고
 나와법을 집착하여 내던망견들
 모든업장 남김없이 소멸되어서
 순간순간 큰지혜가 법계에퍼져
 모든중생 빠짐없이 건져지이다.

허공계가 다하고 증생다하고
증생업이 다하고 번뇌다함이
넓고크고 가없어 한량없으니
저희들의 회향도 이러지이다. [절]

나모 대행 보현보살
나모 대행 보현보살
나모 대행 보현보살 마하살 [반배]

[인레 대중 제창]

일심으로 시방세계 붓다님께 공양 올립니다. [절]

일심으로 시방세계 불법에 공양 올립니다. [절]

일심으로 시방세계 승보님께 공양 올립니다. [절]

다함없는 삼보시여,
저희 공양 받으시고
설계포살 범회를
증명하여 주옵소서. [반배]

[수계자 대표 헌향, 인례 대중 제창]

이 향기 시방에 널리 퍼져
붓다세계 한량없이 장엄하여
십선도로 여래향기 이루리다.

[대중 나모붓다야 십념]

나모붓다야 나모붓다야 나모붓다야 [3편 3회]
나모붓다야

[대중 개경계 합송]

높고 깊은 붓다님 법 만나기가 어려운데
저희 이제 듣고 지녀 참된 의미 깨치리다.

[전계화상 회주 혹은 당주법사 붉은색 진행]

[전계화상]

회주 비구 ○○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중에 고합니다.
대중들의 부탁으로 계를 외우게 되었으나 혹 잘못이 있거
든 자비로 지시하여 주십시오.

오늘 모월 모일 정기 설재포살을 하고자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붓다님께서도 부지런히 정진하신 까닭에 아녹다라삼막
삼보디를 얻으셨으니

하물며 나머지 선도법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오늘이 이미 지나감에 목숨 또한 따라 줄어들어나니,

마치 줄어들는 물의 물고기와 같거늘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화상] 대중이 다 모였습니까.

[대중] 다 모였습니다.

[화상] 화합하십니까.

[대중] 화합합니다.

[화상] 대중이 화합함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대중] 십선계를 설하여 포살을 하기 위함입니다.

[화상] 대중 가운데 십선계를 받지 않은 이와 청정하지 못한 이는 없습니까.

[대중] 대중 가운데는 십선계를 받지 아니한 이와 청정하지 못한 이는 없습니다.

[화상]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이들 중 참여할 수 없는 사정과 자기의 청정함을 위임한 이가 있습니까.

[대중] 사정과 청정함을 말한 이가 없습니다.

[사정 있을 때 대표가 아뢴다.]

[화상] 모든 법사·거사님들은 공경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대중들은 묵연히 듣고서 스스로 죄가 있거든 마땅히 참회하십시오. 참회하면 안락하고 참회하지 않으면 죄가 더욱 깊어집니다.

죄가 없는 이는 가만히 계시십시오. 가만히 계시므로 대중들이 청정한 줄 알게 됩니다.

법사 거사님들이여,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이 마치 눈 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나무토막을 만난 것과 같으니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붓다님 법을 만나기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노천에 누워도 안락하나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이는 비록 천당에 있더라도 마음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과 보물을 지나치게 아끼고 탐하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요,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이가 참다운 붓다의 제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 하나 가지고 온 물건도 없고, 죽어서 떠나갈 때도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천만금의 재물을 가졌더라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생전에 지은 죄의 보따리만 가지고 갑니다.

삼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이지만

백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 티끌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사·거사님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붓다님께 귀의하고 사전에 따르지 마시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하루 속히 정각을 이뤄 널리 중생을 제도하십시오.

십선제삼설삼답 [전계화상 세 번 설하고 대종 세 번 답함]
十善戒三說三答

산 생명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대종후창]

산 생명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대종후창]

산 생명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제창]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대종후창]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대종후창]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제창]

그릇된 이성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종후창]

그릇된 이성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종후창]

그릇된 이성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창]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종후창]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종후창]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창]

꾸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중후창]

꾸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중후창]

꾸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창]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중후창]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중후창]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창]

모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중후창]

모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중후창]

모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창]

탐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대중후창]

탐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대중후창]

탐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제창]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대중후창]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대중후창]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제창]

삿된 소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대중후창]

삿된 소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대중후창]

삿된 소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제창]

대중들이여,

대승의 십선제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 지니십시오.

눈 밝은 사람은 지혜가 밝아 이 십선제를 받아 지낼 수 있게 되어서 불도성취 전이라도 다섯 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시방 모든 붓다님께서 가없이 여기시어 수호함이요.

둘째 이 한 목숨 마칠 때에 정견이 원명하여 환희함이요.

셋째 세세생생에 모든 보살들과 도반이 됨이요.

넷째 닦고 닦은 공덕으로 계바라밀이 원만히 성취됨이요.
다섯째 금생과 내생에 걸쳐 자성계와 복혜가 원만하리라.
설제한 이 공덕을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합니다.
제법 들은 이들은 다 함께 불도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회주 비구 ○○은 대중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중의 부탁으로 송제는 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대중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십시오.

[인례 선창 대중 제창]

보회향진언
普廻向眞言

십선계 염송한 공덕을 저희들은 회향하오니
고통 받는 유정들이 왕생극락 이뤄지이다.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마하 자가라바 흠」 [3편]

나무 대불정 여래밀인 수증요의 제보살만행 수능엄신주
다냐타 「옴 아나례 비사제 비라 바야라 다리 반다반다
니 바야라 바니반 호흞 다로옹박 스바하」 [삼편]

[회주 축원]

退供眞言 「옴 살바 반자 스바하」 [삼편]
퇴공진언

[대중 법담 및 점다(點茶, 有司分排茶餅): 유사는 다과를 나누고 법담을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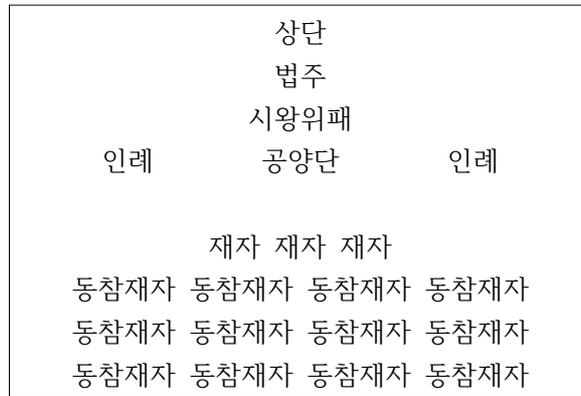
[파산심념]

나모붓다야 나모붓다야 나모붓다야 [삼편]
나모붓다야

[수계를 마친 대중은 자리를 정돈한 후 조용히 퇴좌한다.] [終]

생일권공의식

[이 의식은 생일을 맞이하여 삼보님과 십악을 억지하고 십선을 실천하도록 인도하는 명부세계 시왕과 그 권속에게 권공하여 선업을 닦고 금강경을 독송하며 현세는 복과 수명이 늘어나기를 축원하는 약례 생전에 수재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생일을 맞이하여 정성을 다해 삼보님과 시왕님께 권공하고 스님들께 재승(齋僧)하고자 하는 재자들이 월 1회 생일권공의식을 통해 선업을 닦고 악업을 참회하여 현세의 안락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며 내세에는 극락의 깨끗한 땅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며 공덕을 짓고 나누는 이 권공의례는 이웃과 함께 바로 이곳에 정찰을 세우는 실천의례라고 할 수 있다.]



生日勸供儀

생 일 권 공 의

[상단공양진설, 인례 개시 5분 전 명종 5타, 대중 운집 정좌 명상 후 명종 1타 후 진행]

나모붓다야 [십넛]

淨法界眞言 음 람 [삼칠편]
정 법 계 진 언

[대비주 염송하여 쇄수법사 감로정수를 뿌려 대중과 계단과 공양물을 정화]

신묘장구대다라니
神 妙 章 句 大 陀 羅 尼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나막 알아 바로기데새바라야 모디사
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음, 살바 바예수 다라
나 가라야, 다사명 나막 까리다바, 이맘 알아바로기데새바라
다바, 니라간타 나막 하리나야 마발다 이샤미, 살발타 사다남,
수반, 아예염, 살바 보다남 바바 말아 미수다감, 다냐타, 음,

아로제, 아로가마디, 로가디가란데, 헤헤 하레, 마하 모디사다
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구로 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 도로 미연데 마하미연데, 다라 다라 다린나레새바라, 자
라 자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데, 예헤헤 로제새바라, 라아
미사 미나사야, 나베사미사 미나사야, 모하자라미사 미나사야,
호로 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바나마나바,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못다 못다 모다야 모다야, 매다리야 니라간타, 가
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나야 마낙 스바하, 싯다야 스바하, 마하
싯다야 스바하, 싯다유예새바라야 스바하, 니라간타야 스바하,
바라하목카 싱하목카야 스바하, 바나마 하따야 스바하, 자가
라옥다야 스바하, 상카 섭나 네모다나야 스바하, 마하 라구타
다라야 스바하, 바마 사간타 니샤 시체다 가릿나 이나야 스바
하, 마가라 잘마 니바사나야 스바하,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나막 알야 바로기데새바라야 스바하」 [일삼편]

[시왕소청권공: 淨人이 '시왕도위패[명부십대왕여권속(冥府十大王與眷屬)]를 시왕전에서 모셔 와서 상단에 모셔놓으며 인례가 목탁에 맞춰 진공진언을 염송할 때 권공재자는 증명편재삼보님과 시왕과 권속들에게 차를 올린 다음 법사스님들께 재(공양)를 올리고, 재자와 대중은 삼보님과 시왕님께 삼배한다.]

進供眞言 「옴 반자 스바하」 [삼편]
진공진언

供養偈呪
공양계주

삼보님과 시왕님께 공양 올리니
자비로써 가없이 여겨 거뒀주소서.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후」 [삼편]

[대중 삼배]

普廻向眞言
보회향진언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마하 자가라바 흠」 [삼편]

[금강경 및 찬 염송: 금강경을 1편 13분 2장까지 염송하고 금강경 찬 1편 염송하고 보결진언을 염송함]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 같은 지혜 완성(피안)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천이백오십 명의 많은 비구들과 함께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셨습니다.

마침 공양 때라, 세존께서는 가사를 수하고 발우를 드시고서 탁발을 위해 사위성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차례대로 탁발을 하시고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마치고, 가사와 발우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두 발을 씻으신 다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속에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 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공경히 합

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호
념하시며, 모든 보살들을 잘 부족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깨달은 ‘위없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려
는 마음을 낸 선남자선여인은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수행하
고 어떻게 마음을 조복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도다, 옳도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것과 같이 여래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호념하며 모든 보살들을 잘 부족한다. 그대
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그대를 위해 설할 것이다.

위없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낸 선남자선여인은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마음을 조복 받아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 하며 기쁘게 듣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마하살들은, ‘알에서 나는 것, 태에서 나는 것, 습기에서 나는 것, 화현하여 나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인식작용이 있는 것, 인식작용이 없는 것, 인식작용이 있는 것도 인식작용이 없는 것도 아닌 것 등 일체 중생을, 나는 남음 없는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셀 수 없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완전한 열반에 든 자는 참으로 없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조복 받아야 한다.

무슨 까닭이나. 수보리여, 만일 보살에게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시 또 수보리여, 보살은 경계인 법경계에 머물지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며, 소리·향기·맛·촉감·마음의 대상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여 결모양인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무슨 까닭이나.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은 양을 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의 양을 잴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과 사유, 위·아래 지방의 일체 세계 허공의 양은 잿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머뭇이 없이 보시하는 복덕 또한 이와 같이 그 양을 잿 수가 없나니, 수보리여, 보살은 오직 가르침과 같이 머물러야 한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32상이 구족된 몸매로써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매로는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리까. 여래께서 설하신 몸매라는 것은 곧 몸매가 아

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매라 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만일 32상이 구족된 제상과 32상이 없는 비상을 바로 보면 여래를 볼 수 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 정법이 쇠퇴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는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여래가 멸한 뒤 후오백세에도, 이 법문에 잘 믿는 마음을 낼 것이며, 이를 진실한 것으로 삼아 계

을을 지키며 복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알지니, 이 사람은 한 붓다, 두 붓다, 서너 다섯 붓다께 선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붓다의 자리에 온갖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법문을 듣는 즉시 오직 일념으로 깨끗한 믿음을 내는 자들이다.

수보리여, 여래는 이 모든 증생이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쌓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증생은 다시는 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이 없을 것이며, 법의 상도 없으며, 또한 법의 상이 아니라는 생각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증생이 만일 마음에 상이 일어난다

면 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법의 상이 일어나도 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이냐. 만일 법이 아니라고 하는 상이 생겨난다면 그것도 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을 취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여래는 늘 ‘나의 법문이 꿩목의 비유와 같다는 것을 아는 그대 비구들은, 법도 응당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들이라!’라고 설하였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위없고 바른 깨달음’

을 깨달았느냐? 여래에게 설해진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위없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해질 법이 없으며, 또한 여래에 의해 설해졌다고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리까. 여래에 의해 설해진 법은, 모두 잡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며, 법도 아니요, 법이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이리까. 일체 성현들은 다 무위법으로써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이것으로써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쌓
게 되는 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이 복덕은 곧 복덕
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입니다. 그러므로 복덕이 많다고 여래
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다시 이 법문 가운데 단지 사구계라도 배워 남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복은 앞의 사람이 지은 복덕을 뛰
어넘을 것이다.

무슨 까닭이냐. 수보리여, 일체 붓다와 모든 붓다의 위없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법이 모두 이 상을 타파하라는 법문에서부

터 생겨났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불법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자의 흐름에 든 수다원이 ‘나는 예류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오리까.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 말해지지만, 그는 들지 않았으며, 형상 소리 향기 맛 촉감 마음의 어떤 대상에도 든 적이 없기 때문에 수다원이라 말해지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번만 더 돌아올 사다함이 ‘나는 일래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사다함은 ‘한 번만 더 돌아올 자’라 말해지지만, 참으로 한 번만 갔다왔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다함이라 말해지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아나함이 ‘나는 불환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아나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자’라 말해지지만, 참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나함이라 말해지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아라한이라고 말해질 법이 참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인 중생수자’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서는, 제가 다름 없는 삼매에 머무는 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과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욕망을 여윈 제일 아라한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는 욕망을 여윈 아라한이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나는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자이다, 수보리는 참으로 끌림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좋아한다고 말해질 수 있다’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과거 연등불 회상에 있을 때, 법에 대하여 깨달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불 회상에 계실 때, 법에 대하여 참으로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

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엄한다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머뭇지 않는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어떤 형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향기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어떤 것에도 머뭇지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수보리여, 비유하건대 몸이 수미산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큼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부처님께서서는 ‘몸은 몸이 아니다, 그러므로 큰 몸이라 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하셨습니다.”

“수보리여, 항하 강의 모래알 수와 같은 강가 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강가 강의 모래 숫자가 참으로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모든 강가 강만 하여도 너무 많아 셀 수 없거늘, 하물며 모래의 숫자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 이제 그대에게 분명히 말하리라. 만일 칠보를

이곳 강가 강의 모래 숫자만큼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
그것으로 보시하는 선남자선여인이 있다면, 쌓게 되는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남자선여인이 이 법문에서 사구계만이라도 배워 마
음에 간직하여 남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이로 인해 쌓게
되는 복덕은 앞에서 말한 복덕을 뛰어넘을 것이다.

다시 또, 수보리여, 이 법문이나 사구계만이라도 설한다면,
바로 그곳이 일체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모두 기꺼이

공양하는 부처님의 묘탑과 같은 곳이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법문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사람임에랴.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할 것이며, 이 경전이 있는, 설해지는 곳이 바로 붓다가 머무는 곳이 되며, 존경받는 붓다의 제자들이 머무는 곳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만일 셀 수 없는 아승기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만일 또 이 경전의 네 구절 계송이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보살의 마음을 낸 선남자선여인이 있다면, 이로 인해 쌓게 되는 복덕은 앞의 복덕을 뛰어넘을 것이다. 어떻게 남들을

위하여 설명해 줄 것이냐. 상을 취하지 않으며 여여하여 상에
끌리지 않아야 한다. 무슨 까닭이냐.

형성된 것은 참으로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은 무엇이라 이름합니까? 저희들이 어
떻게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문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 이름할 수 있다. 이 이름으

로써 그대들은 마음에 간직하여라.”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하시자,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들과 일체 세간의 천·인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확신을 가지고 수행하였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찬
金剛般若波羅蜜經纂

여시아문	선남자선녀인	수지독송차경찬일권	여전금강경
如是我聞	善男子善女人	受持讀誦此經纂一卷	如轉金剛經
삼십만편	우득신명가피	증성제휴	국건대력칠년
三十萬遍	又得神明加被	衆聖提攜	國建大曆七年
비산현령	유씨여자	연일십구세신망	지칠일
毘山縣令	劉氏女子	年一十九歲身亡	至七日
득견염라대왕문왈	일생	이래작하인연	여자답왈
得見閻羅大王問曰	一生	已來作何因緣	女子答曰
편지득금강경	일생이래편지	우문왈	하
得金剛經	一生已來偏持	又問曰	何

불염금강경찬 여자답왈 연세상무본 왕왈 방여환활 분명기
 不念金剛經纂 女子答曰 緣世上無本 王曰 放汝還活 分明記
 취경문종여시아문 지신수봉행 도계 오천일백사십구자 육
 取經文從如是我聞 至信受奉行 都計 五千一百四十九字 六
 십구불 오십일세존 팔십오여래 삼십칠보살 일백삼십팔수
 十九佛 五十一世尊 八十五如來 三十七菩薩 一百三十八須
 보리 이십육선남자선녀인 삼십팔하이고 삼십육중생 삼십
 菩提 二十六善男子善女人 三十八何以故 三十六衆生 三十
 일어의운하 삼십여시 이십구아녹다라삼막삼보리 이십일보
 一於意云何 三十如是 二十九阿耨多羅三藐三菩提 二十一布
 시 십팔복덕 일십삼항하사 십이미진 칠개삼천대천세계 칠
 施 十八福德 一十三恒河沙 十二微塵 七箇三千大千世界 七
 개삼십이상 팔공덕 팔장엄 오바라밀 사수다원 사사다함
 箇三十二相 八功德 八莊嚴 五波羅蜜 四須陀垣 四斯陀舍
 사아나함 사아라한 차시 사과선인 여아석위가리왕 할절신
 四阿那含 四阿羅漢 此是 四果僊人 如我昔爲歌利王 割截身
 체 여아왕석 절절지해시 약유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 일
 體 如我往昔 節節支解時 若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一

일 무아견 인견 증생견 수자견 삼비구니 수내 칠사구계
一 無我見 人見 衆生見 壽者見 三比丘尼 數內 七四句偈

보결진언 「옴 호로호로 사야모계 스바하」

반야무진장진언

「나모 바가바떼 브라가 빠라미따예 옴 이리띠 이실리
슈로다 비샤야 비샤야 스바하」

금강심진언 「옴 오륜이 스바하」

지장대성위신력 항하사겁설난진
地藏大聖威神力 恒河沙劫說難盡

견문침례일념간 이익인천무량사
見聞瞻禮一念間 利益人天無量事

지장보살 대성인의 크신 위신력, 항하사 겁 말하여도 다하지 못해
뵈고 듣고 찰나 동안 예배하여도 인간 천상 모두 함께 이익 얻으리.

和請
화 청

冥十大王與眷屬 某氏保體 哀憫覆護 [衆和] 現增福壽 當生淨刹
명 십 대 왕 여 권 속 모 씨 보 체 애 민 부 호 현 증 복 수 당 생 정 찰

명부 십대왕과 권속이시여, 모씨 보체를 연민히 여겨 보호하시고
[중화] 현생에는 복과 수명 늘어나고 내생에는 정토에 가게 하소서.

[시왕봉송: 淨인이 '시왕도위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서 재자와 대중은 절하며 봉송하거나 향로에서 살라 봉송한다. 대중이 다시 법당으로 돌아와서 회향진언을 염송하고 축하를 하며 다과를 나눈다.]

보회향진언
普廻向眞言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마하 자가라바 흠」 [삼편]

나무 대불정 여래밀인 수증요의 제보살만행 수능엄신주
다냐타 「옴 아나례 비사제 비라 바아라 다리 반다반다니
바아라 바니반 호흠 다로옹박 스바하」 [삼편]

축원

생일재자 모인 현증복수 당생정찰
세세상행보살도 마하반야바라밀

退供眞言 「옴 살바 반자 스바하」 [삼편]
퇴공진언

[대중 법담 및 점다] (有司分排茶餅): 대중은 공양을 나누며 법당과 생일권공재자를 축하함

[散會: '나모붓다야' 십념]

나모붓다야 나모붓다야 나모붓다야

[권공을 마친 대중은 자리를 정돈한 후 조용히 퇴좌한다.] 終

석례종송

夕禮鐘頌

※ 저녁 종성은 다섯 마치에 맞춰 집전한다.

문종성 변뇌단 지혜장 보리생
聞鐘聲 煩惱斷 智慧長 菩提生

이지옥 출삼계 원성불 도증생
離地獄 出三界 願成佛 度衆生

이 종소리 듣게 되면 온갖 번뇌 끊어지고 / 지혜는 자라나고 보리심이 일어나서
지옥을 떠나고 삼계를 벗어나 / 불도를 이루고 중생을 건지소서.

파지옥진언

破地獄眞言

「옴 가라디야 스바하」 [삼편]

※ 세 번째 ‘옴’에서 종을 울린다. ※ 저녁예경 시작을 알리는 예불 쇠를 친다.

석례석가불
夕禮釋迦佛

향게
香偈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戒香 定香 慧香 解脫香 解脫知見香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저두]
光明雲臺 周遍法界 供養十方 無量佛法僧

헌향진언
獻香眞言

「옴 바아라 도비아 흠」 [삼편]

찬게
讚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역무비
天上天下無如佛 十方世界亦無比

세간소유아진전 일체무유여불자 [1배]
世間所有我盡見 一切無有如佛者

붓다님 같은 이는 천상천하 볼 수 없고, 붓다님 비할 사람 시방세계 아주 없네.

인간세상 온갖 것을 빠짐없이 보았지만 붓다님 같으신 분 어디에도 전혀 없네.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1·3배]
至心歸命禮 三界導師 四生慈父 是我本師 釋迦牟尼佛

지심귀명례 좌보처 대지 문수보살 [1배]
至心歸命禮 左補處 大智 文殊菩薩

지심귀명례 우보처 대행 보현보살 [1배]
至心歸命禮 右補處 大行 普賢菩薩

유원 [고두례] 석가세존 수아정례 [만배]
唯願 釋迦世尊 受我頂禮



예아미타불
禮阿彌陀佛

향게
香偈

아금지차일주향 변성무진향운개
我今持此一炷香 變成無盡香雲蓋
봉헌극락사성전 원수자비아납수 [1배]
奉獻極樂四聖前 願垂慈悲哀納受

제가 가진 한 줄기 향이 한량없이 향 덮개로 변해져서
극락세계 네 성현님께 올리오니 자비로써 받아주소서.

찬게
讚偈

무량광중화불다 앙첨개시아미타
無量光中化佛多 仰瞻皆是阿彌陀
응신각정황금상 보계도선벽옥라 [1배]
應身各挺黃金相 寶髻都旋碧玉螺

한량없는 광명 중에 많고 많은 화신불을 우러러~ 바라보니 모두가 아미타불
응신이신 부처님들 황금상호 빼어나고 삼십이상 공덕 몸을 온전하게 갖추셨네.

지심귀명례 극락도사 아미타여래불 [1·3배]
至心歸命禮 極樂導師 阿彌陀如來佛

지심귀명례 좌우보처 관음세지 양대보살 [1배]
至心歸命禮 左右補處 觀音勢至 兩大菩薩

지심귀명례 일체청정 대해중보살마하살 [1배]
至心歸命禮 一切清淨 大海衆菩薩摩訶薩

유원 [고두례] 극락사성 수아정례 [반배]
唯願 極樂四聖 受我頂禮



예 관 음 보 살
禮 觀 音 菩 薩

향게
香 偈

계 향 정 향 혜 향 해 탈 향 해 탈 지 견 향
戒 香 定 香 慧 香 解 脫 香 解 脫 知 見 香

광 명 운 대 주 변 법 계 공 양 시 방 무 량 불 법 승 [저두]
光 明 雲 臺 周 遍 法 界 供 養 十 方 無 量 佛 法 僧

헌 향 진 언 「옴 바아라 도미야 흠」 [삼편]
獻 香 眞 言 「 唵 巴 阿 囉 訶 囉 吽 」 [三 遍]

찬게 [召請 獻供 時 活用]
讚 偈 소청 헌공 시 활용

일엽홍련재해중 벽파심처현神通
一 葉 紅 蓮 在 海 中 碧 波 深 處 現 神 通

작야보타관자재 금일강부도량중
昨 夜 普 陀 觀 自 在 今 日 降 赴 道 場 中

붉은 연꽃 한 이파리 바다 위로 솟아나서, 푸른 물결 깊은 곳서 온갖 신통 나타내고

어젯밤엔 보타공서 자재하게 관하시고, 오늘은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찬계
讚 偈

백의관음무설설 남순동자불문문
白衣觀音無說說 南巡童子不聞聞

병상녹양삼제하 암전취죽시방춘 [1배]
瓶上綠楊三際夏 巖前翠竹十方春

백의관음 설함 없이 설하시고, 남순동자 듣지 않고 들으시네.

정병의~ 버들가지 늘 여름이고, 바위 앞 대나무는 온통 봄이네.

지심귀명례 보문시현 원력홍심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1배]
至心歸命禮 普門示現 願力洪深 大慈大悲 觀世音菩薩

지심귀명례 심성구고 응제증생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1배]
至心歸命禮 尋聲救苦 應諸衆生 大慈大悲 觀世音菩薩

지심귀명례 좌보처 남순동자 우보처 해상용왕 [1배]
至心歸命禮 左補處 南巡童子 右補處 海上龍王

유원 [고두례] 관세음보살 수아정례 [반배]
唯願 觀世音菩薩 受我頂禮

예지장보살
禮地藏菩薩

향게
香偈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戒香 定香 慧香 解脫香 解脫知見香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저두]
光明雲臺 周遍法界 供養十方 無量佛法僧

헌향진언 「옴 바아라 도비야 흠」 [삼편]
獻香眞言 「Om baara do bi ya hum」

찬게
讚偈

지장대성위신력 항하사겁설난진
地藏大聖威神力 恒河沙劫說難盡

전문첨례일념간 이익인천무량사 [절]
見聞瞻禮一念間 利益人天無量事

지장보살 대성인의 크신 위신력, 항하사 겁 말하여도 다하지 못해

뵈고 듣고 찰나 동안 예배하여도, 인간 천상 모두 함께 이익 얻으리.

지심귀명례 유명교주 지장보살마하살 [3배]
至心歸命禮 幽冥教主 地藏菩薩摩訶薩

지심귀명례 좌보처 도명존자 [1배]
至心歸命禮 左補處 道明尊者

지심귀명례 우보처 무독귀왕 [1배]
至心歸命禮 右補處 無毒鬼王

유원 [고두례] 지장보살 수아정례 [반배]
唯願 地藏菩薩 受我頂禮



칠정례 예경문

七頂禮 禮敬文

●향례(향을 올리고 예경할 때)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戒香 定香 慧香 解脫香 解脫知見香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삼배]
光明雲臺 周遍法界 供養十方 無量佛法僧

광명의 구름처럼 시방세계 두루 하여 한량없는 불·법·승 삼보님께 공양합니다.

헌향진언 「음 바아라 도비야 흠」[삼편]
獻香眞言

[지심귀명례로 들어간다]

●다례(청수를 올리고 예경할 때)

아금청정수 변위감로다 봉헌삼보전 원수애납수 [3설]
我今清淨水 變爲甘露茶 奉獻三寶前 願垂哀納受

제가 올린 맑은 물이 감로다로 변해지며, 삼보님께 올리오니 ‘자비로써 받으소서.’ [말구 3설]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절]
至心歸命禮三界導師四生慈父是我本師釋迦牟尼佛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불타야증 [절]
至心歸命禮十方三世帝網剎海常住一切佛陀耶衆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달마야증 [절]
至心歸命禮十方三世帝網剎海常住一切達摩耶衆

지심귀명례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至心歸命禮大智文殊師利菩薩大行普賢菩薩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제존보살마하살 [절]
大悲觀世音菩薩大願本尊地藏菩薩諸尊菩薩摩訶薩

지심귀명례 영산당시 수불부촉 십대제자 십육성 오백성
至心歸命禮靈山當時受佛付囑十大弟子十六聖五百聖

독수성 내지 천이백 제대아라한 [무량] 자비성증 [절]
獨修聖乃至千二百諸大阿羅漢無量慈悲聖衆

지심귀명례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至心歸命禮西乾東震及我海東歷代傳燈諸大祖師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절]
天下宗師 一切微塵數 諸大善知識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승가야증 [절]
至心歸命禮 十方三世 帝網剎海 常住一切 僧伽耶衆

유원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아정례 [반배]
唯願 無盡三寶 大慈大悲 受我頂禮

[석]예불참회문
夕禮佛懺悔文

1 대자비로 중생들을 어여삐 보셔
대희대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수승하신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절]

2 지심귀명례 금강상사 [절]
志心歸命禮 金剛上師

3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절]
歸依佛 歸依法 歸依僧

4 제가 이제 발심하여 예배하옵은
제 스스로 복 얻거나 천상에 나며
성문 연각 보살지위 구함 아니요

오직오직 최상승을 의지하옵고
 아늑다라삼막삼보디심 뉘시오이다.
 원하노니 시방세계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무상보리 얻어지이다. [절]

5 지심귀명례 시방 진허공계 일체제불 [절]
 志心歸命禮十方塵虛空界一切諸佛

6 지심귀명례 시방 진허공계 일체존법 [절]
 志心歸命禮十方塵虛空界一切尊法

7 지심귀명례 시방 진허공계 일체현성승 [절]
 志心歸命禮十方塵虛空界一切賢聖僧

8 지심귀명례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志心歸命禮如來應供正徧知明行足善逝世間解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절]
 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

9 지심귀명례 보광불 [절]
 志心歸命禮普光佛

- 10 지심귀명례 보명불 [절]
 志 心 歸 命 禮 普 明 佛
- 11 지심귀명례 보정불 [절]
 志 心 歸 命 禮 普 淨 佛
- 12 지심귀명례 다마라발전단향불 [절]
 志 心 歸 命 禮 多 摩 羅 跋 耨 檀 香 佛
- 13 지심귀명례 전단광불 [절]
 志 心 歸 命 禮 耨 檀 光 佛
- 14 지심귀명례 마니당불 [절]
 志 心 歸 命 禮 摩 尼 幢 佛
- 15 지심귀명례 환희장마니보적불 [절]
 志 心 歸 命 禮 歡 喜 藏 摩 尼 寶 積 佛
- 16 지심귀명례 일체세간락견상대정진불 [절]
 志 心 歸 命 禮 一 切 世 間 樂 見 上 大 精 進 佛
- 17 지심귀명례 마니당등광불 [절]
 志 心 歸 命 禮 摩 尼 幢 燈 光 佛
- 18 지심귀명례 혜거조불 [절]
 志 心 歸 命 禮 慧 炬 照 佛

- 19 지심귀명례 해덕광명불 [절]
 志心歸命禮 海德光明佛
- 20 지심귀명례 금강퇴강보산금광불 [절]
 志心歸命禮 金剛牢強普散金光佛
- 21 지심귀명례 대강정진용맹불 [절]
 志心歸命禮 大強精進勇猛佛
- 22 지심귀명례 대비광불 [절]
 志心歸命禮 大悲光佛
- 23 지심귀명례 자력왕불 [절]
 志心歸命禮 慈力王佛
- 24 지심귀명례 자장불 [절]
 志心歸命禮 慈藏佛
- 25 지심귀명례 전단굴장엄승불 [절]
 志心歸命禮 前檀窟莊嚴勝佛
- 26 지심귀명례 현선수불 [절]
 志心歸命禮 賢善首佛
- 27 지심귀명례 선의불 [절]
 志心歸命禮 善意佛

- 28 지심귀명례 광장엄왕불 [절]
 志 心 歸 命 禮 廣 莊 嚴 王 佛
- 29 지심귀명례 금화광불 [절]
 志 心 歸 命 禮 金 華 光 佛
- 30 지심귀명례 보개조공자재력왕불 [절]
 志 心 歸 命 禮 寶 蓋 照 空 自 在 力 王 佛
- 31 지심귀명례 허공보화광불 [절]
 志 心 歸 命 禮 虛 空 寶 華 光 佛
- 32 지심귀명례 유리장엄왕불 [절]
 志 心 歸 命 禮 琉 璃 莊 嚴 王 佛
- 33 지심귀명례 보현색신광불 [절]
 志 心 歸 命 禮 普 現 色 身 光 佛
- 34 지심귀명례 부동지광불 [절]
 志 心 歸 命 禮 不 動 智 光 佛
- 35 지심귀명례 항복중마왕불 [절]
 志 心 歸 命 禮 降 伏 衆 魔 王 佛
- 36 지심귀명례 재광명불 [절]
 志 心 歸 命 禮 才 光 明 佛

- 37 지심귀명례 지혜승불 [절]
 志心歸命禮 智慧勝佛
- 38 지심귀명례 미륵선광불 [절]
 志心歸命禮 彌勒仙光佛
- 39 지심귀명례 선적월음묘존지왕불 [절]
 志心歸命禮 善寂月音妙尊智王佛
- 40 지심귀명례 세정광불 [절]
 志心歸命禮 世淨光佛
- 41 지심귀명례 용종상존왕불 [절]
 志心歸命禮 龍種上尊王佛
- 42 지심귀명례 일월광불 [절]
 志心歸命禮 日月光佛
- 43 지심귀명례 일월주광불 [절]
 志心歸命禮 日月珠光佛
- 44 지심귀명례 혜당승왕불 [절]
 志心歸命禮 慧幢勝王佛
- 45 지심귀명례 사자후자재력왕불 [절]
 志心歸命禮 獅子吼自在力王佛

- 46 지심귀명례 묘음승불 [절]
 志心歸命禮 妙音勝佛
- 47 지심귀명례 상광당불 [절]
 志心歸命禮 常光幢佛
- 48 지심귀명례 관세등불 [절]
 志心歸命禮 觀世燈佛
- 49 지심귀명례 혜위등왕불 [절]
 志心歸命禮 慧威燈王佛
- 50 지심귀명례 법승왕불 [절]
 志心歸命禮 法勝王佛
- 51 지심귀명례 수미광불 [절]
 志心歸命禮 須彌光佛
- 52 지심귀명례 수만나화광불 [절]
 志心歸命禮 須曼那華光佛
- 53 지심귀명례 우담발라화수승왕불 [절]
 志心歸命禮 優曇鉢羅華殊勝王佛
- 54 지심귀명례 대혜력왕불 [절]
 志心歸命禮 大慧力王佛

- 55 지심귀명례 아촉비환희광불 [절]
 志 心 歸 命 禮 阿 闍 毘 歡 喜 光 佛
- 56 지심귀명례 무량음성왕불 [절]
 志 心 歸 命 禮 無 量 音 聲 王 佛
- 57 지심귀명례 재광불 [절]
 志 心 歸 命 禮 才 光 佛
- 58 지심귀명례 금해광불 [절]
 志 心 歸 命 禮 金 海 光 佛
- 59 지심귀명례 산해혜자재동왕불 [절]
 志 心 歸 命 禮 山 海 慧 自 在 通 王 佛
- 60 지심귀명례 대통광불 [절]
 志 心 歸 命 禮 大 通 光 佛
- 61 지심귀명례 일체법상만왕불 [절]
 志 心 歸 命 禮 一 切 法 常 滿 王 佛
- 62 지심귀명례 석가모니불 [절]
 志 心 歸 命 禮 釋 迦 牟 尼 佛
- 63 지심귀명례 금강불괴불 [절]
 志 心 歸 命 禮 金 剛 不 壞 佛

- 64 지심귀명례 보광불 [절]
 志心歸命禮 寶光佛
- 65 지심귀명례 용존왕불 [절]
 志心歸命禮 龍尊王佛
- 66 지심귀명례 정진군불 [절]
 志心歸命禮 精進軍佛
- 67 지심귀명례 정진희불 [절]
 志心歸命禮 精進喜佛
- 68 지심귀명례 보화불 [절]
 志心歸命禮 寶火佛
- 69 지심귀명례 보월광불 [절]
 志心歸命禮 寶月光佛
- 70 지심귀명례 현무우불 [절]
 志心歸命禮 現無愚佛
- 71 지심귀명례 보월불 [절]
 志心歸命禮 寶月佛
- 72 지심귀명례 무구불 [절]
 志心歸命禮 無垢佛

- 73 지심귀명례 이구불 [절]
 志 心 歸 命 禮 離 垢 佛
- 74 지심귀명례 용시불 [절]
 志 心 歸 命 禮 勇 施 佛
- 75 지심귀명례 청정불 [절]
 志 心 歸 命 禮 清 淨 佛
- 76 지심귀명례 청정시불 [절]
 志 心 歸 命 禮 清 淨 施 佛
- 77 지심귀명례 사류나불 [절]
 志 心 歸 命 禮 娑 留 那 佛
- 78 지심귀명례 수천불 [절]
 志 心 歸 命 禮 水 天 佛
- 79 지심귀명례 견덕불 [절]
 志 心 歸 命 禮 堅 德 佛
- 80 지심귀명례 전단공덕불 [절]
 志 心 歸 命 禮 栴 檀 功 德 佛
- 81 지심귀명례 무량국광불 [절]
 志 心 歸 命 禮 無 量 掬 光 佛

- 82 지심귀명례 광덕불 [절]
 志 心 歸 命 禮 光 德 佛
- 83 지심귀명례 무우덕불 [절]
 志 心 歸 命 禮 無 憂 德 佛
- 84 지심귀명례 나라연불 [절]
 志 心 歸 命 禮 那 羅 延 佛
- 85 지심귀명례 공덕화불 [절]
 志 心 歸 命 禮 功 德 華 佛
- 86 지심귀명례 연화광유희신통불 [절]
 志 心 歸 命 禮 蓮 華 光 遊 戲 神 通 佛
- 87 지심귀명례 재공덕불 [절]
 志 心 歸 命 禮 才 功 德 佛
- 88 지심귀명례 덕념불 [절]
 志 心 歸 命 禮 德 念 佛
- 89 지심귀명례 선명칭공덕불 [절]
 志 心 歸 命 禮 善 名 稱 功 德 佛
- 90 지심귀명례 홍염제당왕불 [절]
 志 心 歸 命 禮 紅 焰 帝 幢 王 佛

- 91 지심귀명례 선유보공덕불 [절]
 志心歸命禮 善遊步功德佛
- 92 지심귀명례 투전승불 [절]
 志心歸命禮 鬪戰勝佛
- 93 지심귀명례 선유보불 [절]
 志心歸命禮 善遊步佛
- 94 지심귀명례 주잡장엄공덕불 [절]
 志心歸命禮 周匝莊嚴功德佛
- 95 지심귀명례 보화유보불 [절]
 志心歸命禮 寶華遊步佛
- 96 지심귀명례 보련화선주사라수왕불 [절]
 志心歸命禮 寶蓮華善住娑羅樹王佛
- 97 지심귀명례 법계장신아미타불 [절]
 志心歸命禮 法界藏身阿彌陀佛

98 이와 같은 모든 세계 제불세존은
 어느 때나 중생들과 함께하시니
 저희들을 이제 다시 살피주소서

저희들의 지난날을 생각하오면
이생으로 저 생으로 그 먼 생으로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내려오면서
가지가지 지은 죄가 한이 없으니
제 스스로 혼자서도 지었사오며
다른 이를 시켜서도 짓게 하오며
남이 하는 나쁜 짓을 좋아하였고
탐전이나 삼보도량 갖춘 물건도
승물이나 사방승물 가릴 것 없이
제 것인양 마음대로 갖기도 하고
다른 이를 시켜서도 흠치었으며
상주물건 흠치기를 좋아하였고

무간지옥	떨어질	오역중죄도
제 스스로	혼자서도	지었사오며
다른 이를	시켜서도	짓게 하오며
남이 짓는	오역죄를	좋아하였고
삼악도에	떨어질	십악중죄도
제 스스로	혼자서도	지었사옵고
다른 이를	시켜서도	짓게 하오며
남이 짓는	십불선도	좋아했으니
이와 같은	모든 죄가	태산 같으되
어떤 것은	지금에도	생각에 남고
어떤 것은	아득하여	알 수 없으나
알든 말든	지은 죄에	오는 과보는

지옥 아귀 축생도나 다른 악취나
변지하천 멸려차로 떨어지리니
제가 이제 지성 다해 부처님 전에
이와 같은 모든 죄상 참회합니다. [절]

99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제불세존은
저희들의 온갖 일을 다 아시오니
대자비심 베푸시어 살피주소서
제가 다시 제불 전에 아뢰옵니다.
저희들이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보시공덕 지었거나 계를 가지되
축생에게 먹이 한입 준 일로부터
청정범행 닦고 익힌 정행공덕과

중생들을	성취시킨	선근공덕과
무상보리	수행해온	수행공덕과
위없는	큰 지혜의	모든 공덕도
모든 것을	함께 모아	요량하여서
남김없이	보리도에	회향하옵되
시방삼세	상주하신	부처님께서
지으신	온갖 공덕	회향하듯이
저도 또한	그와 같이	회향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죄상	참회하옵고
모든 복덕	남김 없이	수희하오며
부처님을	칭하온	공덕으로써
무상지혜	이뤄지길	원하옵니다.

시방삼세	상주하신	부처님들은
시방세계	다함없는	중생들에게
가없고	한량없는	공덕바다니
제가 이제	목숨 바쳐	절하옵니다. [절]

100	가없는	시방세계	그 가운데에
	과거현재	미래세의	부처님들께
	맑고 맑은	몸과 말과	뜻을 기울여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정하옵되
	보현보살	행과원의	위신력으로
	널리 일체	여래 전에	몸을 나투고
	한몸 다시	찰진수효	몸을 나투어
	찰진수불	빠짐없이	예정합니다. [절]

101 일미진증 미진수효 부처님 계셔
곳곳마다 많은 보살 모이시었고
무진법계 미진에도 또한 그같이
부처님이 총만하심 깊이 믿으며
몸몸마다 한량없는 음성으로써
다함없는 묘한 말씀 모두 내어서
오는 세상 일체법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의 깊은 공덕 찬탄합니다. [절]

102 아름답기 으뜸가는 여러 꽃타래
좋은 풍류 좋은 향수 좋은 일산들
이와 같은 훌륭한온 장엄구로써
시방삼세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으뜸가는 좋은 의복 좋은 향들과
가루향과 꽃는 향과 등과 촛불의
날날 것을 수미산의 높이로 모아
일체여래 빠짐없이 공양하오며
넓고 크고 수승하온 이내슬기로
시방삼세 부처님을 깊이 믿삼고
보현보살 행원력을 모두 기울여
일체제불 빠짐없이 공양합니다. [절]

103 지난 세상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무시이래 탐진치심 어리석음에
몸과 말과 뜻으로써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남김없이 참회합니다. [절]

104 시방세계 여러 종류 모든 중생과
성문 연각 유학 무학 여러 이승과
일체의 부처님과 모든 보살의
지니옵신 온갖 공덕 기뻐합니다. [절]

105 시방세계 계시옵는 세간등불과
가장처음 보리도를 이루신 님께
위없는 묘한 법문 설하시기를
제가 이제 지성 다해 권청합니다. [절]

106 부처님이 대열반에 들러하시면
무량겁을 이 세상에 계시오면서
일체중생 이락하게 살피주시길
있는 지성 기울여서 권청합니다. [절]

107 부처님을 예찬하고 공양한 공덕
오래 계셔 범문하심 청하온 공덕
기뻐하고 참회하온 온갖 선근을
증생들과 보리도에 회향합니다. [절]

108 원합노니 수승하온 이 공덕이여
위없는 진법계에 회향하소서.
이치에도 현상에도 막힘이 없고
불법이고 세간이고 걸림이 없는
삼보님과 삼매인의 공덕바다를
제가 이제 남김없이 회향하오니,
모든 증생 신구의로 지은 업장들
잘못 보고 트집 잡고 비방도 하고

나와 법을 집착하여 내던 망견들
모든 업장 남김없이 소멸되어서
순간순간 큰 지혜가 법계에 퍼져
모든 증생 빠짐없이 건져지이다.
허공계가 다하고 증생 다하고
증생업이 다하고 번뇌 다함이
넓고 크고 가없어 한량없으니
저희들의 회향도 이러지이다. [절]

나모 대행 보현보살
나모 대행 보현보살
나모 대행 보현보살 마하살 [저두]

예신증단
禮神衆壇

다게
茶偈

청정명다약 능제병혼침 유기옹호증 원수애납수
淸淨名茶藥 能除病昏沈 唯冀擁護衆 願垂哀納受

청정명다 묘한 약은 병과 혼침 없애주니 옹호성중이시여, 자비로 받으소서.

찬게
讚偈

옹호성중혜감명 사주인사일념지
擁護聖衆慧鑑明 四洲人事一念知
애민중생여적자 시고아금공경례 [절]
哀愍衆生如赤子 是故我今恭敬禮

옹호성중께서는 지혜로 밝게 살펴 온 세계 모든 일을 한순간에 다 아시고,
모든 중생 자식처럼 어여뵈 여기시니, 저희 이제 공경히 예경합니다.

[104위 수륙성증을 모셨을 때]

지심귀명례 금강보살명왕증 [절]
至心歸命禮 金剛菩薩明王衆

지심귀명례 범석사왕일월제천증 [절]
至心歸命禮 梵釋四王日月諸天衆

지심귀명례 하계당처 일체호법선신등증 [절]
至心歸命禮 下界當處 一切護法 善神等衆

[39위 화엄성증을 모셨을 때]

지심귀명례 화엄회상 욕색제천증 [절]
至心歸命禮 華嚴會上 欲色諸天衆

지심귀명례 화엄회상 팔부사왕증 [절]
至心歸命禮 華嚴會上 八部四王衆

지심귀명례 화엄회상 호법선신증 [절]
至心歸命禮 華嚴會上 護法善神衆

[104위 혹은 39위 성증 예경을 마치고 하는 발원]

원제호법성현증 위아옹호불리신
願諸護法聖賢衆 爲我擁護不離身

어제난처무제난 심증소원능성취

於 諸 難 處 無 諸 難 心 中 所 願 能 成 就

불법문중 옹호하시는 성현이시여, 저희를 옹호하여 떠나지 마옵시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어려움 없어지고, 마음속의 소원이 이뤄지게 하소서.

조례 종송

朝禮鐘頌

※ 의미: 종송은 미망에 빠진 모든 중생들의 깊은 잠을 깨워주며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극락세계의 장엄을 일러주고 귀의 발원하도록 하는 의식이다.

※ 방법: 집전자는 도량석이 끝나기 전에 미리 법당 안 소종 앞에 앉아서 도량석 목탁이 끝맺음을 할 때 먼저 종들을 울린 후 소종을 울린다.

願此鐘聲遍法界 鐵圍幽暗悉皆明

원 차 종 성 변 법 계 철 위 유 암 실 개 명

三途離苦破刀山 一切衆生成正覺

삼 도 이 고 파 도 산 일 체 중 생 성 정 각

이 종소리 온 법계에 두루 퍼져 철위산 아득한 어둠 다 걷히고 삼악도의 고통 여의고 도산지옥 무너져서 일체 중생 바른 깨침 이뤘 지이다.

南無 毘盧教主 華藏慈尊 演寶偈之金文 布琅函之玉軸

나 무 비 로 교 주 화 장 자 존 연 보 게 지 금 문 포 랑 함 지 옥 축

塵塵混入 刹刹圓融 十兆九萬五千四十八字

진 진 혼 입 찰 찰 원 융 십 조 구 만 오 천 사 십 팔 자

一乘圓教 大方廣佛華嚴經 [삼편]

일 승 원 교 대 방 광 불 화 엄 경

비로교주 화장자존께서 보배로운 계송으로 금문을 설하시고 옥과 같은 낭함의 두루마리 펼치시니, 그 가르침이 티끌마다 서로 스며들고 세계마다 원용 이뤄 십조 구만 오천 사십 팔자 일승원교 대방광불화엄경의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나모대방광불화엄경 [삼편]

○破地獄偈(唯心偈)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약 인 욕 요 지 삼 세 일 체 불 응 관 법 계 성 일 체 유 심 조

과거 현재 미래세의 모든 부처님, 그 가르침을 알고자 한다면 모든 것은 이 마음이 지은 것이라는 법계성품을 관할지니라.

破地獄眞言
파 지 옥 진 언

「나모 아따 시지남 삼막삼뭇다 구치남
음 아자나 바바시 지리지리 흠」 [삼편]

[莊嚴念佛=淨土修業]
장엄염불 정토수업

願我盡生無別念 阿彌陀佛獨相隨
원 아 진 생 무 별 념 아 미 타 불 독 상 수

心心常係玉毫光 念念不離金色相
심 심 상 계 옥 호 광 념 념 불 리 금 색 상

이 생명 다하도록 별 생각 않고 애오라지 아미타불 따르오며
마음마다 옥호광명 늘 떠올리고 언제나 금빛 모습 늘 간직하네.

我執念珠法界觀 虛空爲繩無不貫
아 집 염 주 법 계 관 허 공 위 승 무 불 관

平等舍那無何處 觀求西方阿彌陀
평 등 사 나 무 하 처 관 구 서 방 아 미 타

염주 잡고 법계를 관하오니 허공으로 끈을 삼아 못 꿰는 것 없고
평등한 노사나불 안 계신 곳 없어 서방정토 아미타불 관하여 구합니다.

南無西方大教主 無量壽如來佛 「南無阿彌陀佛」 [삼념]
나 모 서 방 대 교 주 무 량 수 여 래 불 나 모 아 미 타 불

※ 아미타불 정근 및 이하의 장엄염불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가감한다.

極樂世界 十種莊嚴
극락 세계 십종장엄

法藏誓願修因莊嚴 四十八願願力莊嚴
법장서원수인장엄 사십팔원원력장엄

彌陀名號壽光莊嚴 三大士觀寶像莊嚴
미타명호수광장엄 삼대사관보상장엄

彌陀國土安樂莊嚴 寶河清淨德水莊嚴
미타국토안락장엄 보하청정덕수장엄

寶殿如意樓閣莊嚴 晝夜長遠時分莊嚴
보전여의누각장엄 주야장원시분장엄

二十四樂淨土莊嚴 三十種益功德莊嚴 南無阿彌陀佛
이십사락정토장엄 삼십종익공덕장엄 나모아미타불

법장비구 서원 세워 인행 닦은 장엄이요, 48원 거룩하신 원력으로 장엄이요,
아미타불 명호 불러 무량한 빛 장엄이요, 세 분 성현 보배로운 상호의 장엄이요,
아미타불 국토를 안락한 장엄이요, 보배 강물 맑고 맑은 공덕수의 장엄이요,
보배궁전 여의누각 층층으로 장엄이요, 낮과 밤의 길고 길어 시간 세계 장엄이요,
이십사 종 즐거움이 정토 가득 장엄이요, 서른 가지 이익 되는 공덕 장엄 이루었네.

彌陀因行四十八願 四十八願度脫衆生
미타인행사십팔원 사십팔원도탈중생

諸佛菩薩十種大恩 普賢菩薩十種大願 南無阿彌陀佛
제불보살십종대은 보현보살십종대원 나모아미타불

釋迦如來八相成道

석가여래팔상성도

兜率來儀相 毘藍降生相 四門遊觀相 踰城出家相 雪山修道相 樹下降
도솔래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하향

魔相 鹿苑轉法相 雙林涅槃相 南無阿彌陀佛

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 나모아미타불

도솔천서 백상 타고 인간모태 드신 모습, 룸비니의 동산에서 사자후의 탄생 모습
사대문을 둘러보고 삶의 무상 아신 모습, 한밤중에 성을 넘어 비장하신 출가 모습
설산에서 육년 고행 도를 닦는 수행 모습, 보리수하 마군 중을 항복받는 성도 모습
녹원에서 법을 처음 전하시는 전도 모습, 사라쌍수 아래에서 세상 뜨신 열반 모습

多生父母 十種大恩

다생부모십종대은

懷胎守護恩 臨產受苦恩 生子忘憂恩 咽苦吐甘恩 廻乾就濕恩 乳哺養
회태수호은 임산수고은 생자망우은 인고토감은 회간취습은 유포양

育恩 洗濯不淨恩 遠行憶念恩 爲造惡業恩 究竟憐愍恩 南無阿彌陀佛
육은 세탁부정은 원행억념은 위조악업은 구경연민은 나모아미타불

태에 품어 목숨 걸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낳으실 때 괴로움을 참아내어 견딘 은혜
갓난아기 낳은 뒤에 모든 근심 잊은 은혜, 쓴 것 골라 자기 먹고 단 것 찾아 먹인 은혜
마른자리 아기 눕고 젖은 데로 가신 은혜, 젖과 밥과 약으로써 양육하여 주신 은혜
더러운 것 싫다 않고 갈아주고 씻긴 은혜, 먼 길 갔다 올 때까지 걱정하며 애쓰는 은혜
자식 위해 몸쓸 짓도 마다 않고 행한 은혜, 어른 되어 장성해도 가엾어서 하는 은혜

五種大恩 銘心不忘

오 종 대 은 명 심 불 망

各安其所國家之恩 生養劬勞父母之恩

각 안 기 소 국 가 지 은 생 양 구 로 부 모 지 은

流通正法師長之恩 四事供養檀越之恩

유 통 정 법 사 장 지 은 사 사 공 양 단 월 지 은

琢磨相成朋友之恩 當可爲報唯此念佛 南無阿彌陀佛

탁 마 상 성 붕 우 지 은 당 가 위 보 유 차 염 불 나 모 아 미 타 불

각처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 준 나라 은혜, 낳아주고 길러주신 하늘같은 부모 은혜
바른 진리 일러주고 깨쳐주신 스승 은혜, 의식주와 양약 공양 베풀어준 시주 은혜
함께 닦고 부딪히며 성장시킨 친구 은혜,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지극정성 염불하리.

[念佛偈염불게]

阿彌陀佛在何方 着得心頭切莫忘

아 미 타 불 재 하 방 착 득 심 두 절 막 망

念到念窮無念處 六門常放紫金光 南無阿彌陀佛

염 도 염 궁 무 염 처 육 문 상 방 자 금 광 나 모 아 미 타 불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가. 마음 머리에 꼭 붙들어 간절하게 잊지 말고
생각이 다하여서 잡념 없는 곳 이르면 눈 귀 코 혀 몸 뜻에서 자금광을 발하리라.

[無碍偈무애게]

青山疊疊彌陀窟 滄海茫茫寂滅宮
청 산 첩 첩 미 타 굴 창 해 망 망 적 멸 궁

物物拈來無罣碍 幾看松頂鶴頭紅 南無阿彌陀佛
물 물 염 래 무 가 애 기 간 송 정 학 두 흥 나 모 아 미 타 불

겹겹의 푸른 산은 아미타불의 거처이고 아득한 푸른 바다는 적멸궁이라.

세상만사 무얼 해도 걸릴 것이 없게 되면 소나무 위 붉은 학 머리 보게 되리라.

[彌陀偈미타게]

極樂堂前滿月容 玉毫金色照虛空
극 락 당 전 만 월 용 옥 호 금 색 조 허 공

若人一念稱名號 頃刻圓成無量功 南無阿彌陀佛
약 인 일 념 칭 명 호 경 각 원 성 무 량 공 나 모 아 미 타 불

극락전 마당에 만월 같은 얼굴하고, 금빛 몸과 옥빛 광명 온 허공을 비추누나.

누구든지 일념으로 그 명호를 부른다면 순식간에 무량공덕 원만하게 이루리라.

[度身偈도신게]

三界猶如汲井輪 百千萬劫歷微塵
삼 계 유 여 급 정 룬 백 천 만 겁 역 미 진

此身不向今生度 更待何生度此身 南無阿彌陀佛
차 신 불 향 금 생 도 갱 대 하 생 도 차 신 나 모 아 미 타 불

삼계윤회는 두레박처럼 돌고 돌아, 백천만겁 지나도록 벗어나기 어려운데
이 몸 받은 금생 안에 깨달지 못한다면 언제 다시 생을 받아 이 내 몸을 구제하리.

[贊德偈찬덕계]

刹塵心念可數知 大海中水可飲盡

찰진심념가수지 대해중수가음진

虛空可量風可繫 無能盡說佛功德 南無阿彌陀佛

허공가량풍가계 무능진설불공덕 나모아미타불

세상 티끌과 번뇌를 세고 알고 큰 바다의 그 물을 모두 마시고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 묶어도 부처님의 크신 공덕 다 말 못하리.

[夜坐偈야좌계]

山堂靜夜坐無言 寂寂寥寥本自然

산당정야좌무언 적적요요본자연

何事西風動林野 一聲寒雁戾長天 南無阿彌陀佛

하사서풍동림야 일성한안려장천 나모아미타불

조용한 산사에 말없이 앉으니 고요하고 텅 빈 본래 자연 그 자리라.
서쪽 바람 숲 흔들리니 어인 일일까, 찬 기러기 울음소리 긴 하늘 가르네.

[月雲偈일운계]

報化非眞了妄緣 法身清淨廣無邊

보 화 비 진 요 망 연 법 신 청 정 광 무 변

千江有水千江月 萬里無雲萬里天 南無阿彌陀佛

천 강 유 수 천 강 월 만 리 무 운 만 리 천 나 모 아 미 타 불

보신 화신 참 아니니 그릇된 연 끝내면 법신이 청정하여 넓고 넓어 가없어라.

천강의 물에는 일천의 달이 뜨고, 만리장천에 구름 없이 하늘은 가없도다.

[讚佛偈찬불계]

天上天下無如佛 十方世界亦無比

천 상 천 하 무 여 불 시 방 세 계 역 무 비

世間所有我盡見 一切無有如佛者 南無阿彌陀佛

세 간 소 유 아 진 견 일 체 무 유 여 불 자 나 모 아 미 타 불

천상천하 부처님 같은 이 없고 시방세계 그 누구도 비할 수 없어

온 세상을 내가 모두 볼지라도 부처님 같으신 분 일절 없어라.

[入山偈입산계]

世尊當入雪山中 一坐不知經六年

세 존 당 입 설 산 중 일 좌 부 지 경 육 년

因見明星云悟道 言詮消息遍三千 南無阿彌陀佛

인 견 명 성 운 오 도 언 전 소 식 변 삼 천 나 모 아 미 타 불

세존께서 설산에 드시고는 한번 앉아 여섯 해를 모르고 지나치셨네.
밝은 새벽 봄으로써 깨달았다 하셨으니 한 소식 깨친 말씀 온 세상에 두루 하네.

[一樹偈일수게]

圓覺山中生一樹 開花天地未分前

원 각 산 중 생 일 수 개 화 천 지 미 분 전

非青非白亦非黑 不在春風不在天 南無阿彌陀佛

비 청 비 백 역 비 흑 부 재 춘 풍 부 재 천 나 모 아 미 타 불

월만한 깨침 산의 한 나무가 하늘 땅 나뉘기 전 꽃을 피었네.
푸르지도 희지도 검지도 않고 봄바람과 하늘에도 있지 아니 하네.

[絲綸偈사륀게]

千尺絲綸直下垂 一波纔動萬波隨

천 척 사 륀 직 하 수 일 파 재 동 만 파 수

夜靜水寒魚不食 滿船空載月明歸 南無阿彌陀佛

야 정 수 한 어 불 식 만 선 공 재 월 명 귀 나 모 아 미 타 불

천 길 되는 낚싯줄을 곧게 바로 드리우니 한 물결이 일어나매 만 물결이 따르도다.
적막한 밤 물은 차서 고기 물지 아니하니 한배 가득 텅 빈 채로 달빛 싣고 돌아오네.

[三途偈삼도게]

地獄途中受苦衆生 餓鬼途中受苦衆生
 지옥도중수고중생 아귀도중수고중생
 畜生途中受苦衆生 聞此鐘聲離苦得樂 南無阿彌陀佛
 축생도중수고중생 문차종성이고득락 나모아미타불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이여 이 종소리 듣고 깨치소서.
 아귀로 고통 받는 중생이여 이 종소리 듣고 배고픔을 면하소서.
 축생으로 고통 받는 중생이여 이 종소리 듣고 밝고 지혜로우소서.

[廻向偈회향게]

願共法界諸衆生 同入彌陀大願海
 원공법계제중생 동입미타대원해
 盡未來際度衆生 自他一時成佛道 南無阿彌陀佛
 진미래제도중생 자타일시성불도 나모아미타불

법계의 모든 중생이 아미타불 원력바다에 모두 함께 들어가서
 미래세가 다하도록 모든 중생 제도하고 너도나도 모두 일시에 불도를 이뤄지이다.

※ 다음 염불을 하면서 소중을 내리고, '개공성불도'에서 올린 후 다섯 마치로 마친다.

南無 西方淨土 極樂世界 三十六萬億 一十一萬 九千五百
 나모 서방정토 극락세계 삼십육만억 일십일만 구천오백

同名同號 大慈大悲 阿彌陀佛

동 명 동 호 대 자 대 비 아 미 타 불

서방정토 극락세계 36만억 일십일만 구천오백 이름과 호 같으시고 대자대비한 아미타부처님께 귀명합니다.

阿彌陀佛 本心微妙真言 「다냐타 음 아리다라 스바하」 [37편]

아 미 타 불 본 심 미 묘 진 언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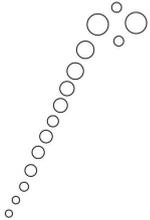
원 이 차 공 덕 보 급 어 일 체 아 등 여 중 생 개 공 성 불 도

이 공덕이 일체에 두루 미쳐 우리 모두 불도를 이뤄 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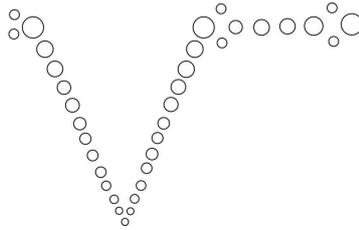
2) 공덕계송 2구 뒤에 있던 “當生極樂國 同見無量壽”는 후대에 편입된 구절이라 생략한다.

※ 법고 범종 운판 목어의 사물을 올린 후, 아침 예경 작을 알리는 법당 소중 예불 쇠를 친다.

시작할 때



마칠 때



※ 곧 바로 마지쇠를 치고 아침예불에 들어간다.



[대응전] 향수해례
大雄殿香水海禮

茶偈
다 게

我今淸淨水 變爲甘露茶 奉獻諸尊前 願垂哀納受
아 금 청 정 수 변 위 감 로 다 봉 헌 제 존 전 원 수 애 납 수

南無香水海	華藏界	毗盧海會	諸佛諸菩薩
나 모 향 수 해	화 장 계	비 로 해 회	제 불 제 보 살
南無千華臺	蓮藏界	舍那海會	諸佛諸菩薩
나 모 천 화 대	연 장 계	사 나 해 회	제 불 제 보 살
南無千華上	百億界	釋迦海會	諸佛諸菩薩
나 모 천 화 상	백 억 계	석 가 해 회	제 불 제 보 살
南無日月光	琉璃界	藥師海會	諸佛諸菩薩
나 모 일 월 광	유 리 계	약 사 해 회	제 불 제 보 살
南無安養國	極樂界	彌陀海會	諸佛諸菩薩
나 모 안 양 국	극 락 계	미 타 해 회	제 불 제 보 살

南 나	無 모	兜 도	率 솔	天 천	內 내	院 원	界 계	慈 자	氏 씨	海 해	會 회	諸 제	佛 불	諸 제	菩 보	薩 살
南 나	無 모	大 대	威 위	德 덕	金 금	輪 륜	界 계	消 소	災 재	海 해	會 회	諸 제	佛 불	諸 제	菩 보	薩 살
南 나	無 모	清 청	涼 량	山 산	金 금	色 색	界 계	文 문	殊 수	海 해	會 회	諸 제	佛 불	諸 제	菩 보	薩 살
南 나	無 모	峨 아	嵒 미	山 산	銀 은	色 색	界 계	普 보	賢 현	海 해	會 회	諸 제	佛 불	諸 제	菩 보	薩 살
南 나	無 모	金 금	剛 강	山 산	衆 중	香 향	界 계	法 법	起 기	海 해	會 회	諸 제	佛 불	諸 제	菩 보	薩 살
南 나	無 모	洛 낙	迦 가	山 산	七 칠	寶 보	界 계	觀 관	音 음	海 해	會 회	諸 제	佛 불	諸 제	菩 보	薩 살
南 나	無 모	七 칠	珍 진	山 산	八 팔	寶 보	界 계	勢 세	至 지	海 해	會 회	諸 제	佛 불	諸 제	菩 보	薩 살
南 나	無 모	閻 염	摩 마	羅 라	幽 유	冥 명	界 계	地 지	藏 장	海 해	會 회	諸 제	佛 불	諸 제	菩 보	薩 살
南 나	無 모	盡 진	虛 허	空 공	徧 편	法 법	界 계	塵 진	沙 사	海 해	會 회	諸 제	佛 불	諸 제	菩 보	薩 살

南無西乾四七 唐土二三 五波分流 歷代傳燈 諸大祖師
나 모 서 건 사 칠 당 토 이 삼 오 파 분 류 역 대 전 등 제 대 조 사

天下宗師 一切微塵數 諸大善知識
천 하 종 사 일 체 미 진 수 제 대 선 지 식

唯願 [고두례] 無盡三寶 大慈大悲 受我頂禮
유 원 무 진 삼 보 대 자 대 비 수 아 정 례

冥熏加被力 願共法界諸衆生 同入彌陀大願海
명 훈 가 피 력 원 공 법 계 제 중 생 동 입 미 타 대 원 해

조례석가불
朝禮釋迦佛

茶偈
다 게

我今清淨水 變爲甘露茶 奉獻本師前 願垂哀納受 [저두]
아 금 청 정 수 변 위 감 로 다 봉 헌 본 사 전 원 수 애 납 수

讚偈
찬 게

天上天下無如佛 十方世界亦無比
천 상 천 하 무 여 불 십 방 세 계 역 무 비
世間所有我盡見 一切無有如佛者 [1배]
세 간 소 유 아 진 견 일 체 무 유 여 불 자

至心歸命禮 三界導師 四生慈父 是我本師 釋迦牟尼佛 [1·3배]
지 심 귀 명 레 삼 계 도 사 사 생 자 부 시 아 본 사 석 가 모 니 불

至心歸命禮 左補處 大智 文殊菩薩 [1배]
지 심 귀 명 레 좌 보 처 대 지 문 수 보 살

至心歸命禮 右補處 大行 普賢菩薩 [1배]
지 심 귀 명 레 우 보 처 대 행 보 현 보 살

唯願 [고두레] 釋迦世尊 受我頂禮 [반배]
유 원 석 가 세 존 수 아 정 레



[조]예 불발원문³⁾
 朝 禮 佛 發 願 文

시방삼세 부처님과 팔만사천 큰 법보와
 보살성문 스님에게 지성귀의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살피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성품 등지옴고 무명속에 뛰어들어
 나고죽는 물결따라 빛과소리 물이 들고
 심술긋고 욕심내어 온갖번뇌 쌓았으며
 보고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지어
 잘못된길 갈팡질팡 생사고해 해매면서
 나와남을 집착하고 그른길만 찾아다녀

3) 「怡山惠然禪師發願文」 우리말번역은 耘虛 선사(1892-1980)로 알려져 있다. 임기중, 『불교가사원전연구』(동국대학교 출판부, 2000), 996쪽.

여러생에 지은업장 크고작은 많은허물
삼보전에 원력빌어 일심참회 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네 살피시어
고통바다 헤어나서 열반언덕 가사이다.
이세상의 명과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적마다 좋은국토 밝은스승 만나오며
바른신심 굳게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눈이 총명하고 말과뜻이 진실하며
세상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으신 거동으로 모든생명 사랑하여
이내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난 만나잡고 불법인연 구족하며
반야지혜 드러나고 보살마음 견고하여
제불정법 잘배워서 대승진리 깨달은뒤
육바라밀 행을뉘아 아승기겁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천겁만겁 의심끊고
마군증을 항복받고 삼보혜명 잇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일 잠깐인들 쉬오리까.
온갖법문 다배워서 모두통달 하옵거든
복과지혜 함께늘어 무량중생 제도하며
여섯가지 신통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법체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중생 건지실제
여러갈래 몸을나뉘어 미묘법문 연설하고
지옥아귀 나쁜곳엔 광명놓고 신통보여

내모양을 보는이나 내이름을 듣는이는
보리마음 모두내어 윤회고통 벗어나되
화탕지옥 끓는물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검수도산 날선칼날 연꽃으로 변화되어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새와 기는짐승 원수맺고 빛진이들
온갖고통 벗어나서 좋은복락 누리지다.
모진질병 돌적에는 약플되어 치료하고
흉년드는 세상에 쌀이되어 구제하되
여러중생 이익한일 한가진들 빼오리까.
천겁만겁 내려오던 원수거나 친한이나
이세상의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것없이
엷히있던 애정끊고 삼계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성불 하사이다.

허공끝이 있다한들 이내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뤄지다.
마하반야바라밀
나모 석가모니불
나모 석가모니불
나모시아본사 석가모니불

怡山 然禪師 發願文(이산 연선사 발원문)⁴⁾

歸命十方調御師 演揚清淨微妙法

三乘四果解脫僧 願賜慈悲哀攝受

但某甲

自違眞性 枉入迷流 隨生死以飄苞 逐色聲而貪染

十纏十使 積成有漏之因 六根六塵 妄作無邊之罪

迷淪苦海 深溺邪途 着我耽人 舉枉措直

4) 性聰 『緇門警訓註』에는 「怡山然禪師發願文」(『韓佛全』 8-610上)이라 하여 혜연 선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精選懸吐 緇門』(安震湖 撰, 법륜사, 1981, 2판, 50쪽후)에 “然은 惠然이라”는 협주가 있고; 1970년대 이후 吳杲山 『佛子受持讀誦經』(1976년 초판); 李智冠 編著, 『信行寶鑑』(대각회 출판부, 1980)에는 「이산 혜연 선사 발원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면서 ‘慧然’이라고 표기되었다고 보인다.

累生業障 一切愆尤 仰三寶以慈悲 瀝一心而懺悔
所願
能仁拯拔 善友提携
出煩惱之深淵 到菩提之彼岸 此世福基命位
各願昌隆 來生智種靈苗 同希增秀
生逢中國 長遇明師 正信出家 童真入道
六根通利 三業純和 不染世緣 常修梵行
執持禁戒 塵業不侵 嚴護威儀 瀝飛無損
不逢八難 不缺四緣 般若智以現前 菩提心而不退
修習正法 了悟大乘 開六度之行門 越三祇之劫海
建法幢於處處 破疑網於重重 降伏衆魔 紹隆三寶
承事十方諸佛 無有疲勞 修學一切法門 悉皆通達
廣作福慧 普利塵沙 得六種之神通 圓一生之佛果
然後
不捨法界 匯入塵勞 等觀音之慈心 行普賢之願海
他方此界 逐類隨形 應現色身 演揚妙法
泥犁苦趣 餓鬼道中 或放大光明 或現諸神變
其有見我相 乃至聞我名 皆發菩提心 永出輪迴苦
火鑊冰河之地 變作香林 飲銅食鐵之徒 化生淨土
披毛戴角 負債含怨 盡罷辛酸 咸沾利樂
疾疫世而現爲藥草 救療沉痾 飢饉時而化作稻粱 濟諸貧餒

但有益無不興崇

次期累世冤親 現存眷屬 出四生之汨沒 捨萬劫之愛纏
等與含生 齊成佛道 虛空有盡 我願無窮 情與無情 同圓種智
摩訶般若波羅蜜

南無釋迦牟尼佛 南無釋迦牟尼佛 南無是我本師釋迦牟尼佛

시방에 두루 하신 조어사調御師와

널리 퍼지고 선양宣揚된 청정 미묘법微妙法과

3승三乘 4과四果 증득한 해탈승께 귀의하오니

자비를 내려 주사 가련히 여겨摄受하오소서.

저(희들은, 누구)는

진여眞如 본성을 어기고 미망迷妄의 세계에 부질없이 들어가,

생사生死를 따라 부침浮沈하였고;

색色과 소리聲를 좇아 탐욕에 물들어,

열 가지 얽매임과 번뇌로 무상한 인연을 쌓았고;

6근六根과 6진六塵으로 가없는 죄를 망령스레 지어,

고해苦海의 그릇된 길에 깊숙이 빠져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굽은 것을 곧은 것이라 억지 부렸습니다.

다생의 업장業障과 일체의 허물을,

삼보三寶를 우러러 자비慈悲에 의지하여

일심一心으로 참회하며 소원합니다.

부처님, 선우善友들을 건져내고 서로 도와
 번뇌의 깊은 바다에서 벗어나 깨침의 피안彼岸에 이르며,
 금생에는 복福의 터전과 명운命運의 자리가 각각 풍성해지고;
 내생에는 지혜 종자의 싹이 더욱 빼어나기를 함께 바라며,
 (좋은 나라) 중국에 태어나서 좋은 스승 항상 만나;
 바른 믿음으로 출가하여 동진童眞으로 불도佛道에 들어가며,
 6근六根은 중도中道에 통하여 막히지 아니하고,
 3업三業은 순일하고 동화同和하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청정한 행 항상 닦으며,
 금계禁戒를 잘 지켜 땅과 초목 함부로 훼손 않고;
 행동거지 조심하여 미물조차 해치지 않으리다.
 (불법 만나는 데 장애가 되는 인연인) 8난八難을 만나지 않고
 (불법 만나 깨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연인) 4연四緣이 빠지지 않아,
 반야지般若智가 눈앞에 드러나고
 보리심菩提心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정법正法을 닦고 익히며 대승大乘의 요체를 깨쳐,
 육바라밀 실천하여 3기겁해三祇劫海 건너리다.
 곳곳에 법法의 깃발 세워 겹겹으로 싸인 의심 없애며,
 갖은 마군魔軍 조복하고 3보三寶를 잇사오며,
 시방제불 섬기되 지치지 않고,

일체 법문法門 배워 익혀 통달하며,
복과 지혜 널리 지어 한없는 법계 중생 이익 주고,
여섯 종류 신통[六神通] 얻어
일생一生의 불과佛果를 원만히 하오리다.

[그런 뒤에는]

법계를 버리지 않고 속진에 들어,
관음의 자비심과 같아지고 보현의 원력을 행하며,
여기저기 어디서나 온갖 무리 따라 색신을 나타내어 미묘微妙 법문法門 설하며,
지옥 아귀 축생도에 들어 대광명大光明과 신통을 보이리다.

내 모습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심菩提心을 내고 윤회의 고통苦海을 영원히 헤어나되,
확탕鑊湯지옥 한빙寒氷지옥 향기로운 숲으로 변해지고;
음동飲銅지옥 철환鐵丸지옥 중생들은 극락에 화생化生하며,
온갖 짐승 빛진 이 원한 품은 이,
모두 괴로움 쉬고 복락福樂이 누려 지이다.

질병 도는 세상에는 약초로 나타내 오랜 병을 치료하고;
끓주리는 세상에는 곡식 되어 가난과 끓주림 건지리니,
쌓지 않음 없으니 이익만 있으리다.

세세생생 원수거나 친한 이나 함께 사는 권속이나
나고 죽는 고통의 부침浮沈에서 벗어나고;

만겁에 걸친 갈애渴愛의 얽매임 끊어지이다.
일체 중생 똑같이 불도佛道를 이루오며,
허공계가 다하고 나의 발원이 다하도록
유정有情 무정無情 일체종지一切種智 함께 원만해지이다.



법성원융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法性圓融無二相 諸法不動本來寂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비여경
無名無相絕一切 證智所知非餘境

법의 자성 원융하여 두 모습이 본래 없고 모든 법은 동함 없이 본래부터 고요하며
이름 없고 모습 없이 일체가 끊어졌고 깨달음을 얻고 보니 다른 경계 아니로다.

진성심심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眞性甚深極微妙 不守自性隨緣成

참된 성품 매우 깊어 지극히 미묘하며 자성을 집착 앓고 인연 따라 나타내네.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
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

하나 속에 일체 있고 일체 속에 하나 있어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

일미진중합시방 일체진중역여시
一微塵中舍十方 一切塵中亦如是

하나의 작은 티끌 시방세계 머금었고 낱알의 티끌마다 시방우주 다 들었네.

무량원겁즉일념 일념즉시무량겁
無量遠劫卽一念 一念卽是無量劫

구세십세호상즉 잉부잡란격별성
九世十世互相卽 仍不雜亂隔別成

한량없는 긴 시간이 곧바로 한 찰나고, 찰나간의 한순간이 무량한 긴 겁이니
구세와 십세가 얽혀 돌며 일치하니 얽힌 듯도 하지만 너무도 분명하네.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初發心時便正覺 生死涅槃常共和

처음 발심했을 때가 곧바로 정각 자리, 생사와 열반 경계 항상 함께 조화롭네.

이사명연무분별 시불보현대인경
理事冥然無分別 十佛普賢大人境

실상 현상 두 자리가 명연하여 구분 없어 열 분 부처 보현보살 대인의 경계로세.

능입해인삼매중 번출여의부사의
能入海印三昧中 繁出如意不思議

우보익생만허공 증생수기득이익
雨寶益生滿虛空 衆生隨器得利益

해인삼매 진여해에 자재하게 들어가서 한량없는 여의주를 마음대로 쏟아내니
중생 돕는 보배비가 허공에 가득 차서 중생들은 그릇 따라 온갖 이익 얻게 되네.

시고행자환본제 파식망상필부득
是故行者還本際 巨息妄想必不得

무연선교착여의 귀가수분득자량
無緣善巧捉如意 歸家隨分得資糧

이러하니 수행자는 본향으로 돌아가소. 망상을 쉬어야만 분명코 가오리니
걸림 없는 선교방편 여의주를 얻으시어 본향으로 돌아갈 때 노자 돈 삼으시라.

이다라니무진보 장엄법계실보전
以陀羅尼無盡寶莊嚴法界實寶殿

궁좌실제중도상 구래부동명위불
窮坐實際中道床 舊來不動名爲佛

한량없이 많고 많은 다라니 보배로써 법계를 실다운 보전으로 장엄하여
허상을 여의고 중도 자리 앉으시니 동함 없는 그 자리를 붓다라 부른다네.

○般若心經(반야심경)

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조견오온개공도일체고액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

사리자색불이공공불이색색즉시공공즉시색수상행식역부
 舍利子色不異空空不異色色即是空空即是色受想行識亦復

여시사리자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구부정부증불감시고
 如是舍利子是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淨不增不減是故

공중무색무수상행식무안이비설신의무색성향미촉법무안
 空中無色無受想行識無眼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觸法無眼

계내지무의식계무무명역무무명진내지무노사역무노사
 界乃至無意識界無無明亦無無明盡乃至無老死亦無老死

진무고집멸도무지역무득이무소득고보리살타의반야바
 盡無苦集滅道無智亦無得以無所得故菩提薩埵依般若波

라밀다고심무가애무가애고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구경
 羅蜜多故心無罣碍無罣碍故無有恐怖遠離顛倒夢想究竟

열반삼세제불의반야바라밀다고득아녹다라삼막삼보리고
 涅槃三世諸佛依般若波羅蜜多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

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知 般若波羅蜜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왈 「아제
能除一切苦 眞實不虛 故說般若波羅蜜多呪 卽說呪曰 揭帝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디 스바하」 [삼편]
揭帝 般羅揭帝 般羅僧揭帝 菩提僧莎訶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감각과 표상과 의지와 의식도 또한 그러하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형상[色]도 없고, 감각[受]과 표상[想]과 의지[行]와 의식[識]도 없으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마음]도 없으며, 형상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의식[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 무명[無明]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괴로움[苦聖諦]과 괴로움의 원인[集]과 괴로움의 없어짐[滅]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道]도 없으며, 지혜[智]도 없고, 얻음도 없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붓다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의 가장 신비한 주(呪), 가장 밝은 주, 위없는 주, 비교될 수 없는 주는 온갖 괴로움을 없애며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아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주를 설하리라. 곧 진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니, 가니, 건너가니, 완전히 건너가니, 깨달음이 이루어지네.」

참고문헌

- 「勸供諸般文」(『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第二輯, 1993), 安邊 釋王寺, 1574.
- 김유광, 「秘密多羅尼의 現代的 理解」, 『韓國佛敎學』第五輯, 서울:韓國佛敎學會, 1980.
- Lokesh, Chandra, 『The thousand-armed Avalokitesvara』, India New Delhi: IGNCA, 1988.
- 민법현, 『혼자서 기도하는 법』, 서울 천중사, 1997.
- 묘성 법안 편, 『법요집』, 우면산 대성사, 2004.
- 묘성 법안 편(2005), 『왕생극락염송문』, 우면산 대성사, 2005.
- 심상현, 『불교의식각론』VI, 서울 한국불교출판부, 2001.
- 우천·법안 공편, 『천수기도법』, 정우서적, 2014.
- 우천·일휴 편, 『신행요집』4관, 정우서적, 2008.
- 이성운, 『금강경 ‘우리말화’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성운, 『천수경, 의궤로 읽다』, 정우서적, 2011.
- 이성운, 『韓國佛敎 儀禮體系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자광, 『성불합시다』, 김룡사, 1993.
- 전재성, 『천수다라니 공덕과 의미』, 광주: 이바지, 1997.
- 『韓國佛敎全書』第二冊, 동국대학교출판부, 1994.

정례신행의범 편찬위원회

위원장 우일

위 원 우상 우남 우천 우전 우행

자 문 우진 우선 우인 우서 우관

정례신행의범

2021년 7월 21일 초판

2023년 12월 8일 삼판

편역: 정례신행의범 편찬위원회
밴드 세계불학원[붓다아카데미]

펴낸 곳: 정우박스

펴낸 이: 이미연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1231호

신고 1992.5.16. 제1992-000048호

전화 02) 720-5538

<비매품>